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하자에서 있었던 일

하자

haja center

2011 연간보고서

다시 돌아본 하자마을의 2011년

1월

1월의 화제는 단연 본격적으로 출범한 '하자창의허브'였다. 2010년 12월 18일 신관에서 열린 '하자창의허브' 개관식에서는 교육, 청년, 사회적기업 등 세 부분의 작은 허브 그룹들이 모여 즐거운 상상들을 나누었다. 1월 8일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내 인생의 O.S.T' 콘서트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하자센터가 문래예술공장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대상 창의 프로그램 '내 인생의 O.S.T'는 예술작업자들과 청소년이 함께 진행하는 스튜디오형 프로젝트로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내 인생의 O.S.T'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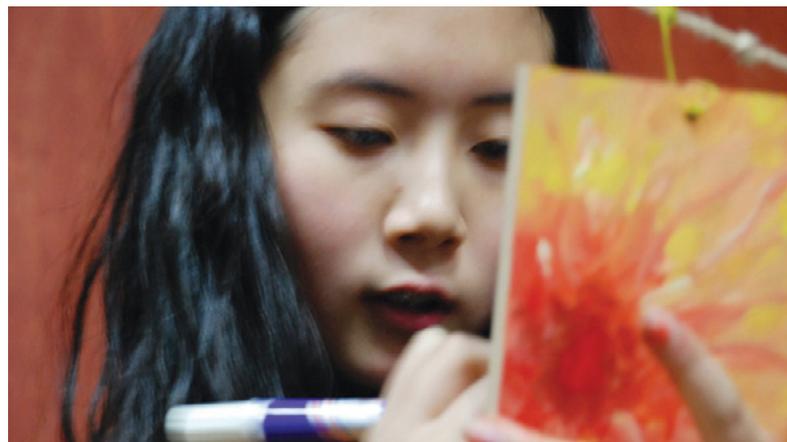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2월

2월에는 전국의 공교육 및 기관, 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가 한 해의 청사진을 밝혔고, 신관의 명소가 된 '하하허카페'도 '카페에서 마을로'를 실천하는 커뮤니티 카페로서 운영을 시작했다. 1년 임기로 하자센터 전반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자체 기획이라는 임무를 띤 청소년 창의위원회 '오 트레커(O Trekker)'도 모였고, 사회적기업 유자격살롱은 지난해의 경험을 기반 삼아 지금은 궤도에 오른 프로그램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2기를 모집하기도 했다.

3월

하자마을 사람들은 3월, 한 청춘의 죽음에 슬퍼했다. 시나리오를 쓰던 최고은 작가.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조한은 '거르는 장치만 있고 키우는 장치는 없는' 사회에 대해 칼럼을 쓰기도 했다. 내 친구, 내 학생, 내 선배, 내 후배, 또한 과거와 미래의 나 자신이었을 그녀의 영전에 올리는 글이었다. 2010년 5월 개장해 도시텃밭의 모델을 실험해본 하자옥상농원팀은 텃밭과 커뮤니티, 텃밭과 문화적 상상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창의리더 특강 프로젝트 '혹, __이심?'도 1년을 마무리하는 리뷰와 함께 2기 모집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과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 '영세프'가 하자마을의 새 식구가 된 달이기도 하다.



<위> '혹, __이심?'
<아래> 영세프 입학식

다시 돌아본 하자마을의 2011년

4월

4월의 핫 이슈는 단연 하자작업장학교가 지난 2월 7일 버마 현지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와 가진 회견이었다.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태국-버마 국경지역의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 모금 등을 벌여온 하자작업장학교는 수치 여사와의 회견 내용을 소상히 전하며 하자마을을 넘어 사회 전반에 잔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초부터 혁신학교들과의 연계를 추진해 왔던 것이 성과를 맺어 부천시 부인중학교의 현관 공간을 멋진 커뮤니티 카페 '다락'으로 꾸민 삶디자인공방의 성과도 소개되었다. 창의교육팀에서는 직업 멘토의 특강과 체험이 결합된 '커리어데이'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협력기획팀에서는 하자센터와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있는 전문가 그룹 '소셜 앤젤(Social Angel)'과의 첫 번째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다. 4월 15일에는 두 해째를 맞는 옥상농원에서 파종제를 겸한 마을 전체의 봄맞이 행사인 '꽃씨파티'가 열렸고, 옥상농원을 무대로 한 청소년 생태 디자인 프로젝트 '자.란.다'도 첫 모임을 가졌다.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홍대에 '오요리'에 이어 두 번째 식문화 공간 '카페 슬로비'를 오픈했다.



<위> 버마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와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

<아래> '자.란.다'



'체인지카펫'

5월

5월에는 하자마을 북카페가 재정비되어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마을 '공유지'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의 교육> 등과 함께 하는 하자작업장학교 주최의 '이 시대 교육포럼'이 처음 시작되었다. 또 하나의 빅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했는데 바로 '체인지카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이하 '청년사업')'에 하자-씨즈 컨소시엄이 서울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시작이다. '청년사업'은 175명의 청년들이 35개 정도의 팀을 이뤄 공동사업과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해 나가는 프로젝트. '체인지카펫'은 하자센터가 부르기로 한 '청년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4월 23일 체인지 메이커 워크숍을 시작으로 30명 내외의 청년들과 1년 동안 함께했다.

다시 돌아본 하자마을의 2011년

6월

연금술사 프로젝트 2기들이 마포구 성산동 639-109번지에 '소풍가는 고양이'라는 도시락 가게를 오픈했으며 '집밖에서유유자적' 2기 역시 6월 4일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에서 생애 최초의 밴드 연주를 선보였다. 스펙 쌓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이 밥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18~24세 청소년 6명의 미래가 걸린 '소풍가는 고양이'는 개업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고, 지금도 성업 중! '영등포 달시장'도 5월 27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달 하자센터 마당에서 열리게 되었다.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하자센터가 주관하는 '영등포 달시장'은 지역 주민과 예술가, 사회적기업가 등이 함께 모여 비우고 나누는 마을장터로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았다. 샵디자인공방은 부천 부인중학교 커뮤니티 카페 디자인에 이어 충현초등학교의 시그너처와 사인물 디자인을 완료했으며 랩과 힙합, 디제잉, 보컬 등 대중음악에 뜻을 품은 청소년들의 산실로 자리잡은 문화예술강좌 '일취월짱 프로젝트'의 강사 및 수강생들이 힘을 모아 쇼하자를 열기도 했다. 하자작업장학교는 지난 3월 11일 일본대지진 이후 석 달이 지난 6월 11일 '원전이 없는 문명'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일본의 많은 친구들과 뜻을 같이 하는 '611 No Nuke Action Day' 행사를 가졌다. 노리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씨즈와 함께 하는 다문화합창단 '몽땅'의 공개 오디션을 열었다.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융합적 문화예술을 선보일 다문화합창단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길로邁進할 새로운 시도이다.



<위> '달시장' 포스터

<아래> '소풍가는 고양이' 로고

우리동네에서 만드는 친환경 활력도시락!



<위> 제 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아래 왼쪽> '커리어워크'

<아래 오른쪽> '제주피스보트'

7월

7월의 하자마을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굵직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중 단연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하자센터가 전체 큐레이팅을 맡은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지난 4월부터 하자센터 및 연계 사회적기업, 청년 문화예술작업자 등이 참여해 기획한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 참여형 창의예술축제'로 기획되었다. 25개 문화작업장과 7개 참여형 프로그램, 26개 체험부스 등 축제 전체가 거대한 스튜디오로 세팅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하자작업장학교는 이 축제에 청소년기획단으로 참여해 큰 역할을 해냈다.

서울에서는 엄청난 폭우를 뚫고 창의교육팀이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100명의 특성화고 청소년들과 함께 심화형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15~20명씩 팀으로 나뉘어 영상, 패션디자인, 외식창업, 애니메이션, 여행, IT 등 6개 분야 현장을 둘러보며 멘토와의 대화, 팀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자센터의 설립자인 조한이 대표 멘토로 참여하고 트래블러스맵이 주관하며 노리단, 오가니제이션 요리, 리블랭크 등 하자마을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했던 '제주피스보트'도 큰 축제였다.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평화의 섬 제주를 오고 가며 생태평화학교에 참여하고, 사회적기업 워크숍에 피스 콘서트, 에코 투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선상의 학교로 기획되었다.

다시 돌아본 하자마을의 2011년

8월

8월의 빅이슈는 하자센터 청소년 창의 프로그램의 모델 사례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주최, 하자센터 주관으로 벌써 3회를 맞는 'C-큐브'는 청소년들만의 관심과 이슈를 발견하고 일상의 요소들을 적극 활용해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창의성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특강과 10개의 창의 워크숍, 또래집단 및 선배와의 활동을 통해 팀워크,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넓히는 팀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올해의 주제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창의성'. 8월 8일부터 8월 10일,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특성화고 학생들 300명이 하자센터에 머무르며 일상생활과 창의를 연결시켜 생활 속에서의 창의적 접근법을 발견해 보는 경험을 해 보았다. 20대 청년 자원활동가로 이뤄진 큐비(Cubist)가 메인 프로그램인 '불만워크숍'의 퍼실리테이터이자 팀별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약했고, 창의워크숍에는 노리단, 이야기꾼의 책 공연, 오가니제이션 요리, 유유자적살롱 등 하자센터 연계 사회적기업은 물론 조슈아트리, 유니버설 닷 오케스트라, 빨난 고양이, 네시:이십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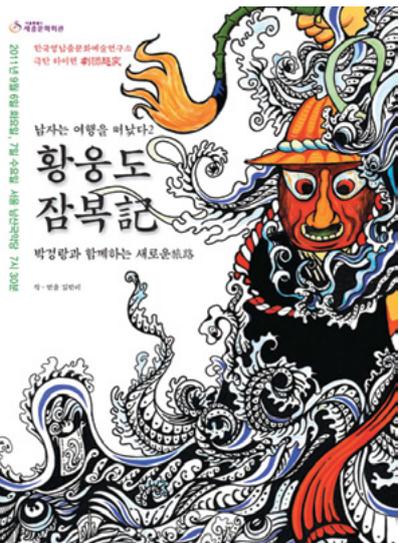


청소년창의캠프 'C-큐브'

9월

9월에는 2001년 9월 12일 개교해 열 번째 생일을 맞은 하자작업장학교의 활약이 빛났다. 9월 6일과 7일 양일간 남산국악당에서 선보인 극단 타이헨의 <황웅도 잠복기> 앙코르 공연에서 배우들과 협업하는 구로코(黑者)로 참여했고, '세계를 구하는 시인들 2' 시리즈도 재개해 슬로라이프 운동에 참여하며 '비전력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후지무라 야스유키 선생님을 모시기도 했다. 9월 12일 한가위에는 언제나처럼 인사동에서 열 한번째 달맞이축제를 열었다. 협력기획팀에서는 9월 3일과 17일 2차에 걸쳐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열었고, 노리단은 영등포구 중앙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개장식을 가지기도 했다. 트래블러스맵은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여행학교 '지구별여행자'를 개강했다.

극단 타이헨의 <황웅도 잠복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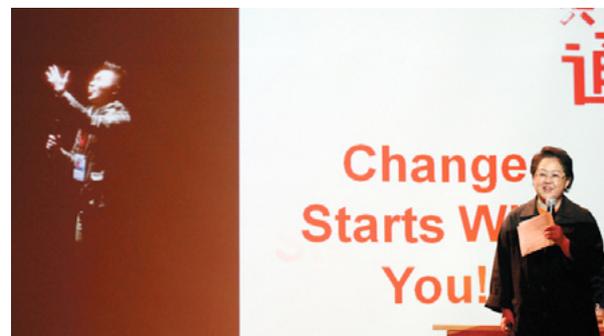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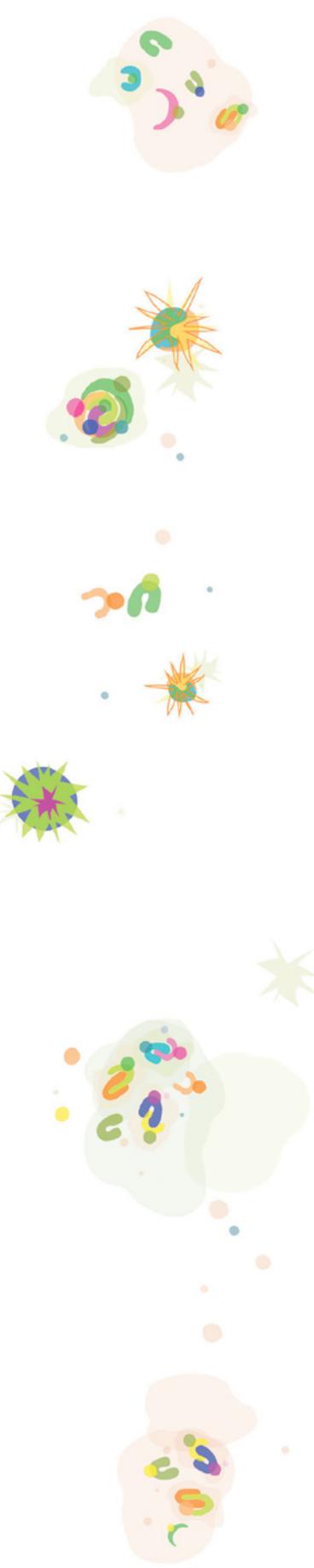
10월의 빅 이벤트는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올해로 3회를 맞는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상상, 행동, 전환'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 사회상황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천적 액션으로 연결하는 워크숍들을 통해 시대의 전환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려 했다. 청소년 교육, 청년 활동, 사회적기업 등 각 현장의 이슈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워크숍들과 오프닝 토크, 클로징 쇼케이스, 마을장터 '달시장' 등 풍성한 프로그램 라인업으로 구성되었다. 개막일부터 비가 쏟아지고 찬바람이 부는 악천후였지만 모든 워크숍 및 행사가 예상 참여 인원을 웃도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새로운 '소통의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현장의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털어놓고 공동 행동의 의지를 모으는 과정, 그 성과들은 창의서밋의 논의들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위> 창의서밋 '에이더 왕' 강연

<아래> 창의서밋 '덤스터 다이빙' 워크숍



2011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



2011년 1월 4일	신년하례식
2011년 1월 8일	C-plat '내 인생의 OST' 쇼하자
2011년 1월 14일	전라북도-하자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2011년 2월 19일	텃밭 세미나 '텃밭, 커뮤니티와 문화적 상상력'
2011년 3월 4일	하자마을 프로보노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파티
2011년 3월 15일	하자마을 입주식 '상견회'
2011년 3월 24일	아카이브 하자 (archive.haja.net) 오픈 쇼하자
2011년 5월 16일	하자마을 성년식
2011년 5월 27일	영등포 달시장 오픈
2011년 6월 11일	No Nuke Action Day
2011년 6월 29일	하자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 제2분기 청소년 권장사이트 선정
2011년 6월 30일	별자리파티
2011년 7월 16일	하자작업장학교, 이 시대 교육포럼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교육'
2011년 7월 25일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기획, 운영
2011년 9월 12일	달맞이축제
2011년 10월 14일~16일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
2011년 10월 31일~11월 3일	서울-전남 청소년문화교류사업
2011년 11월 24일~25일	옥상농원 겨울로 파티
2011년 12월 1일	'에듀케스트라'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011년 12월 5일	연금술사 프로젝트 3기, '달콤한 꼬끼리' 신촌매장 오픈
2011년 12월 6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聽策) 워크숍'

하자조직도



센터장

운영지원부

기획부

사무행정팀

팀장 1명
인사·총무 1명
회계·행정 1명

시설관리팀

팀장 1명
자원·물품관리 1명
하드웨어관리 1명

교육팀

팀장 1명
학교 1명
웹 2명
직업체험 2명
교육사업 3명

창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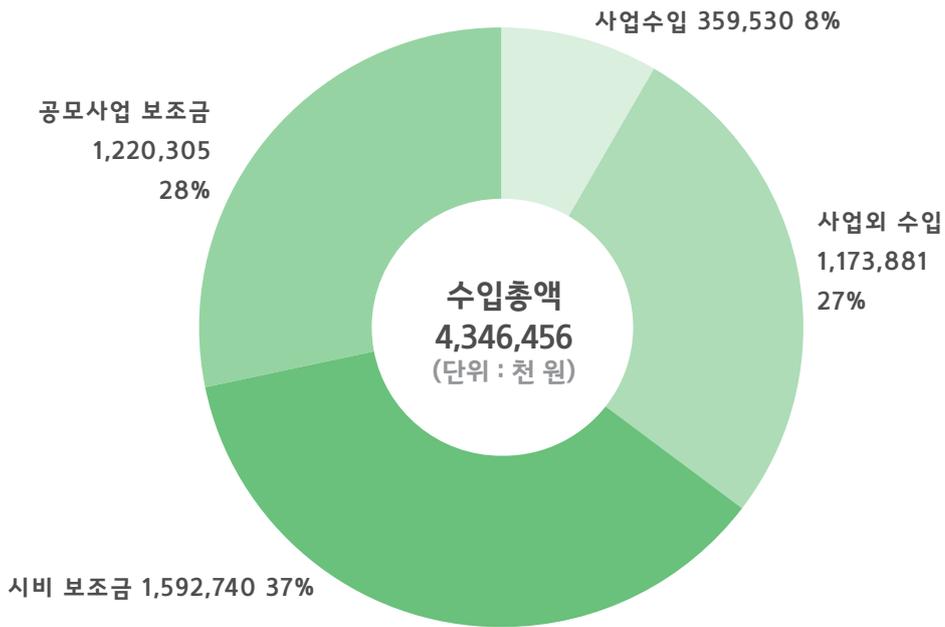
팀장 1명
인큐베이팅 사업 2명
창의허브 2명
공방 2명

협력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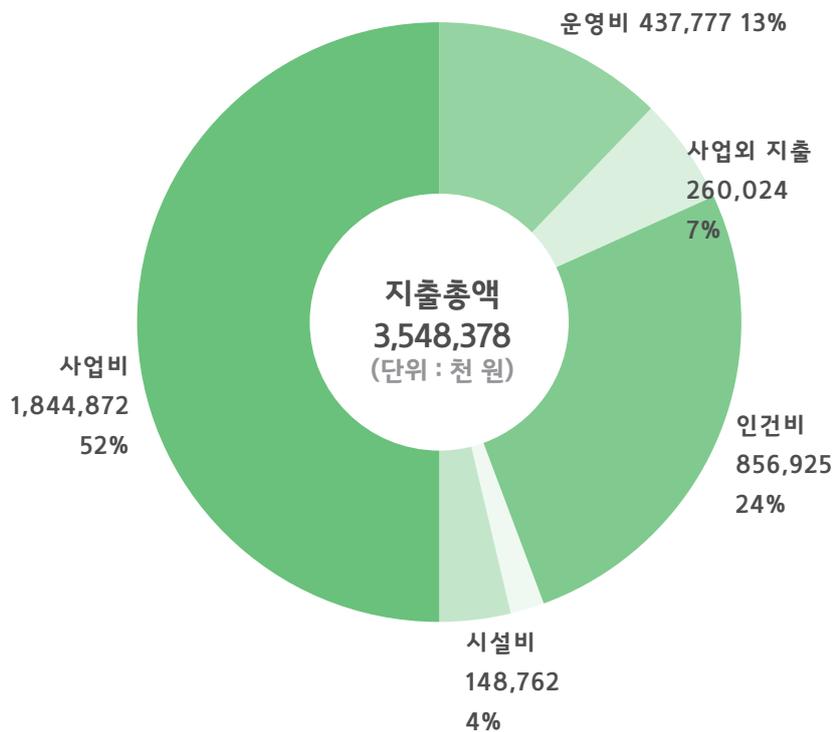
팀장 1명
대외교류 3명
홍보 1명

2011년 예산(세입, 세출) 현황

2011 수입예산



2011 지출예산



2011년 하자센터 운영사업 개관

구분	사업 분류	세부 분류
청소년 허브	하자 네트워크 학교	하자작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연금술사 프로젝트
		영세프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창의 커뮤니티 스쿨	자.란.다
		혹, 이심
		필통넷
		청소년 창의위원회(오 트레커)
		청소년 창의캠프 C-Cube
	진로 커뮤니티 스쿨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커리어데이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 워크
		일취월짱 프로젝트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서울-전남 청소년문화교류사업
		혁신학교 연계사업
		이 시대 교육포럼
		문화예술분야 창의적 진로개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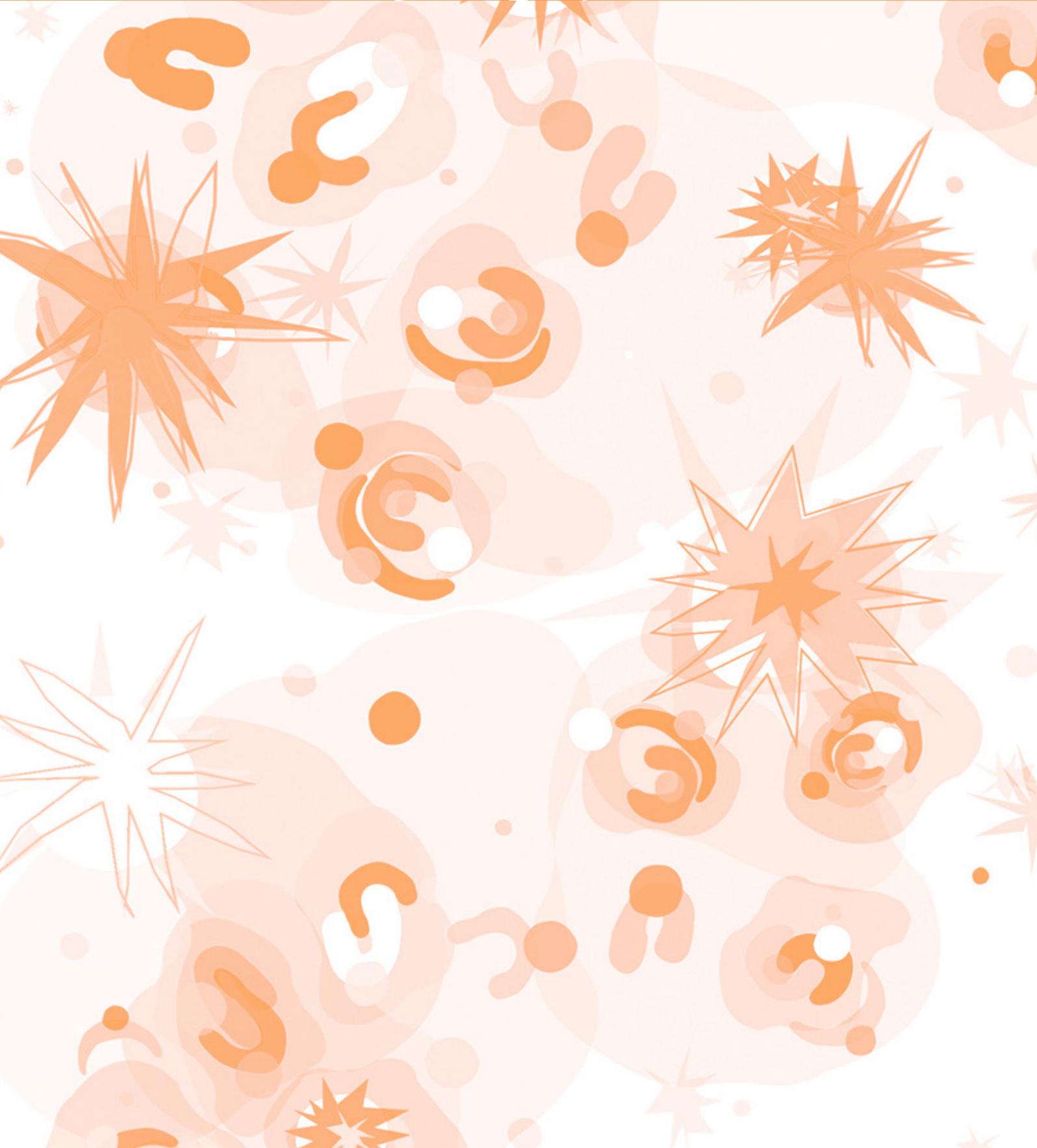
2011년 하자센터 운영사업 개관

구분	사업 분류	세부 분류	
청년 허브	진로설계 및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체인지 카펫	
		사회적 장터(영등포 달시장)	
	사회적기업 파트너십	노리단	대지를 위한 바느질
			리블랭크
			에듀케스트라
			영화제작소 눈
			오가니제이션 요리
			유유자적 살롱
			이야기꾼의 책공연
			콩세알N
트래블러스맵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마켓 & 포럼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聽策) 워크숍		
소셜 허브	하자창의허브	허브 워크룸	
		삶디자인공방	
	서울청소년창의서밋	마을 만들기	하자옥상농원
			별자리파티
			성년식
			달맞이축제
			판돌 포럼 & 살롱
			하자투어
			홍보

세부 항목 바로가기

청소년 허브	001
<< 네트워크 학교 << 하자작업장학교	002
<< 로드스콜라	004
<< 연금술사프로젝트	006
<< 영셰프	008
<< 집밖에서유유자적	010
<< 창의 커뮤니티 스쿨 << 청소년 생태디자인 프로젝트 '자.란.다' 2기	012
<< 필통넷 온라인 학습생태계	014
<< 청소년 창의위원회 '오 트레커'	016
<< 청소년 창의캠프 C-cube	018
<< 진로 커뮤니티 스쿨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020
<< 커리어데이	022
<<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023
<< 일취월장 프로젝트	025
<<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 제 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026
<< 서울-전남 청소년문화교류사업	028
청년 허브	030
<< 진로설계 및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체인지카펫	031
<< 사회적장터(영등포 달시장)	033
<< 사회적기업 파트너십 << 대지를 위한 바느질	035
<< 리블랭크	037
<< 에듀케스트라	039
<< (주)영화제작소 눈	042
<< 오가니제이션 요리	044
<< 유유자적살롱(유자살롱)	047
<< 이야기꾼의 책공연	049
<< 트래블러스맵	051
<<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마켓 & 포럼(CASE FM)2011	053
<<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聽策) 워크숍	055
- 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	
소셜 허브	057
<< 하자창의허브 << 삶디자인공방	058
<< 서울청소년창의서밋	060
<< 마을만들기 << 하자옥상농원	063
<< 별자리파티	065
<< 판돌 세미나/포럼 & 판돌 살롱	066
<< 하자 투어	067
<< 대외 홍보	069

청 소 년 허 브



청소년허브 << 네트워크 학교 << 하자작업장학교

대상 : 4섹터 창의작업자를 꾸는 16세~19세 청소년
(입학 지원 가능연령)

기획 및 운영 : 하자센터

진행 기간 : 2001년 9월 ~ 현재 (2기는 2010년 9월부터)

장소 : 하자센터 내 본관 104호, 107호

2011 하자센터 연보 공간학교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하자작업장학교는 하자센터의 5개 작업장 - 영상, 대중음악, 디자인, 웹, 시민문화 - 과 함께 금융위기 이후 다품종소량생산과 평생학습시대에 스스로의 삶을 모색하며 창의적 문화작업자가 될 청소년들을 위한 자율적 학습공간으로 설립되었다. 5개 작업장의 청소년들 스스로 설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벽이 없는 학교'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인문학 교실이었으며, 2001년 9월 서울시 도시형 대안학교 7개 학교와 비슷한 시기에 개교하면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현재 서울시학교박청소년종합지원센터 희망청)가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학교들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이라는 주목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의제화하면서 그들의 삶(의 동기과 금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여 '고래이야기'를 만들기도 했다.

'고래이야기'는 개교식에 선물한 애니메이션의 제목으로 '학교만들기' 그룹의 여다함이 쓰고 그린 작품이다. 제발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사회적이고 실존적인 존재에 대한 우화적 이야기. 고래의 소리는 인간의 가청권 밖에 있어 들리지 않지만, 거대한 고래의 크기만큼이나 엄연하게, 실은 고래의 노래가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사라진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에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내용.



<위> 아옹산 수치 여사 인터뷰 / <아래> 페스티벌

2010년 9월 제2기를 선언한 하자작업장학교는 문화작업장에서 나아가 4섹터 영역, 시민공동체의 창의작업자를 꿈꾸고 있다. 새로운 우화 '크리킨디이야기'는 1기의 학교공동체의 성원들이 채택한 고대 안데스산맥으로부터 내려오는 우화이다.

2기 첫해의 2010년은 일본의 중증장애인극단 타이헨과의 작업이 중요했다. 타이헨의 중증장애인들을 도와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구로코(黒子) 역할을 1년 반 정도 함께 하게 되면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의 정의를 다시 탐색하였고, 공동체, 시민사회, 함께 살기, 평화에 대한 시야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곧이어 일어난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간의 역사를 구축해온 이 지구라는 별에 대한 자각, 인류문명의 형식과 지속가능성, 삶의 규모와 공생의 감각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별새 '크리킨디'의 정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2기 학교에서 핵심 정신이 되고 있다.



2012년
3월 30일
오후 4시 30분
하자센터 999홀



일러스트 / 디자인 성현목

<< a c t

2010년 9월 이후 하자작업장학교의 관심은 생태(기후변화), 평화, 함께 살기의 3개 열쇠말로 압축된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교실보다는 시민사회가 역동하는 현장, 학습하는 시민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문학적 모험을 즐기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핵, 문명, 지속가능성, 지역자립, 대안에너지, 도시농업, 적정기술, 동료와 공동체 등 학습의 범주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영상, 디자인, 공연음악 3개 팀에 속하여 자기매체훈련과 공동작업에 매진한다. 공연음악팀은 '페스티벌'라는 창업팀을 구성하여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의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청년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80여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퍼레이드의 기획과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등 공연 및 기획 활동을 하고 있다. 디자인팀은 명함솜을 재개하였으며, 하자센터의 뉴스레터, 크고 작은 행사의 배너 등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다. 영상팀은 청년등 사업팀 중 영상제작회사인 플랜비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활동을 하며, 특히 플랜비와는 2011년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의 청소년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하자작업장학교 학생 전원과 여수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축제의 사전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였다. 이는 해양의 생태, 지역과 연대 그리고 청소년을 키워드로 한 기획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자센터 사회적기업 '공세알N'의 농사에 참여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시작한 지역과 농사에 대한 관심은 '공세알N' 사업의 중단과 더불어 하자센터 내의 텃밭실험으로 작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텃밭실험은 '도시형' 혹은 '서울형' 자립과 자활에 대한 고민의 시발점으로 도시형 대안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실험, 지역자급, 공동노동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실험과 학습을 통해 그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버마 어린이의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 '따비에'와 함께 방문해 왔던 현장학습 현장인 태국 메솜의 난민 청소년들과의 교류학습 키워드를 제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발굴해 나가자 한다. 하자작업장학교는 2011년 1월 해금이 되어 바깥 출입이 가능해진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접견을 통해 국경지역 난민 청소년들의 상황을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메솜 지역 방문은 1년 후 성사되었다.

<< c h a n g e

하자작업장학교 1기의 졸업식에서는 담임들이 졸업생들에게 나침반을 선물했다. 학교의 학습여정은 말하자면 담임이라는 길잡이(키잡이)를 따라 동기와 진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자기 길찾기를 하는 과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졸업은 그 길잡이를 스스로 해낼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선언하는 의례였고, 그에 대한 축복의 의미로 담임들은 졸업생 각자의 가슴에 품을 작은 나침반 하나를 선물했던 것이다.

하자작업장학교는 여전히 매 학기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지만 졸업의 의미는 전과 달라졌다. 신입생들은 언제라도 휴업과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매학기 수료식이 진행된다. 학교의 학습여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확인되면, 학생-교사간 상호협의를 통해 각자의 졸업의 의미를 만들고, 졸업 이후에는 크리킨디 정신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사업을 통해 결합하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종의 '졸업 후 과정'으로서의 청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등사업'과 같은 창업활동 또한 그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이다. 졸업은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실천적으로 모색해가는 동료관계를 확인하는 의례이며, 졸업식과 함께 성년식 또한 의미 있게 준비되고 있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여러 의미가 가능하지만, 2기 하자작업장학교는 성장과 발전, 경쟁의 압력 속에서 헤어나와 '지속가능하고 대안적인 삶'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productionschool.org>

페이스북 <http://facebook.com/hajaschool>

문의 school@haja.or.kr

청소년허브 << 네트워크 학교 << 로드스콜라

대상 : 새로운 상상을 할 줄 아는 15세~22세 청소년 및 청년

기획 및 운영 : (주)트래블러스맵

진행 기간: 2009년 ~ 2012년 현재

장소 : 하자센터 내 신관 303호, 302호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즐거운 상상과 창의적 에너지로 서로를 북돋우며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여행학교 로드스콜라는 교실뿐 아니라 '배움이 있는 곳이 곧 학교이고, 가르침을 주는 이가 곧 스승'이라는 모토로 여행을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다양한 여행 프로젝트와 접목한 학습을 통해 길 위에서 철학과 역사, 인문학을 만나고 다른 문화와의 관계맺기를 통해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다. 길별(길잡이별)과 떠별(떠나는별)이 함께 여행하며, 그 여행의 경험을 몸 안에 차곡차곡 쌓아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로드스콜라는 학습과정 2년과 인턴과정 1년으로 구성된다.

* 1학기 길머기 과정 _ 마을 만나다

한 마을을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여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지도를 만들고, 도보여행 코스를 만드는 훈련을 통해 떠별들은 지역에 접근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함께 먹고 자고 작업하며 사소하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관계를 좌우하는 주요한 갈등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방식도 배우게 된다.

* 2학기 길가온 과정 1 _ 길 위에서 역사를 만나다

본격적으로 길 위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단계이다. 여행은 먼저 살아갔던 인간들의 욕망과 꿈, 지혜를 만날 수 있는 더없이 훌륭한 교과서이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대하고 끈끈한 인류의 오랜 소망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 3학기 길가온 과정 2 _ 동시대와 만나다

21세기를 함께 살아갈 세계의 이웃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여행을 떠난다. 연대와 네트워크로 경계를 살짝 흔들며 '다른' 사람들 속으로 관계를 확장해 가는 법을 배우고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사이의 공존을 꿈꾸며 때로 누군가는 불합리하고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로드스콜라_안나 푸르나 현지인과 함께 걷기

* 4학기 길가온 과정 3 _ 나의 여행 MAP을 만들다

여행의 기획과 실행, 작업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독립적으로 해내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하고 스스로 만드는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책을 만들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이 과정을 통해 떠별들은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MAP(Make Amazing Planet)의 문화작업자로 성장할 것이다.

* 5~6학기 길너머 과정 _ 인턴십

(주)트래블러스맵의 인턴으로 일하면서 여행과 관련한 실무를 체험하고 해외네트워크 단체에서 일하는 경험도 하면서 여행전문가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하게 된다. 로드스콜라는 여행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에게 직업을 찾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 이 과정을 통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기'를 꿈꾸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 a c t

< 로드스콜라 1기 13명 수료 / 3명 졸업 >

2009 1학기 길머리 과정

_ 마을을 만나다 : 진안

2009 2학기 길가온 과정

_ 길 위에서 역사를 만나다 : 백제의 길 백제의 향기-일본

2010 3학기 길가온 과정

_ 동시대와 만나다 : 공정무역 루트를 찾아서-네팔

2010 4학기 길가온 과정 _ 나의 여행 MAP을 만들다

<백제의 길 백제의 향기> 출간

‘바람따라싸운드’ 레이블 창립, 콘서트 및 앨범 제작

2011 5~6학기 길너머 과정

_ (주)트래블러스맵 인턴십 수료 과정 이후 졸업

< 로드스콜라 2기 7명 수료 >

2010 1학기 길머리 과정

_ 마을을 만나다 : 국경의 남쪽, 탐라-제주도

2010 2학기 길가온 과정

_ 길 위에서 역사를 만나다 : 뽀예스트 프로젝트-연해주

2011 3학기 길가온 과정

_ 동시대와 만나다 : 공공의 적積-핀란드

2011 4학기 길가온 과정

_ 나의 여행 MAP을 만들다

‘눈초롱 유치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바람따라싸운드’ 레이블 콘서트 및 앨범 제작

< 로드스콜라 3기 13명 현재 진행 중 >

2011 1학기 길머리 과정 _ 마을을 만나다 : 청산도

2011 2학기 길가온 과정 _ 길 위에서 역사를 만나다 : 사진

신부를 찾아-하와이

2012 3학기 길가온 과정 _ 동시대와 만나다 : 문학과 공정

무역 그리고 춤-남미

< 로드스콜라 4기 16명 현재 진행 중 >

2012년 1학기 길머리 과정

_ 마을을 만나다 : 희망의 종점, 태백

<< c h a n g e

로드스콜라는 매년 1월 사업설명회, 2월 모집과 상호면접 이후 3월 입학파티를 시작으로 1기수별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로드스콜라 3기는 ‘길가온 과정 3_ 나의 여행 MAP을 만들다’ 4학기로 청산도, 하와이, 남미 프로젝트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필름 페스티벌과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할 계획이며, 로드스콜라 4기는 ‘길가온 과정 2_ 길 위에서 역사를 만나다’ 2학기로 동북아시아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중국 조선족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변화하는 중국대륙에 대해 공부하는 여행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 로드스콜라는 여행을 통해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와 접속하여 지역과 세계를 가로지르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배움을 꿈꿔 나갈 것이다.

<< m o r e i n f o

(주)트래블러스맵 <http://travelersmap.co.kr/>

로드스콜라 <http://roadschola.haja.net/>

청소년허브 << 네트워크 학교 >> 연금술사프로젝트

대상 : 18세~24세의 위탁 시설 및 저소득층 청(소)년
 청소년 위탁 시설 및 저소득 청(소)년
 대안학교 졸업생 및 탈학교 청(소)년

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장소 : 하자센터
 연금술사 1차 매장 '소풍가는 고양이'(마포구 성산동)
 2차 매장 '달콤한 꼬끼리'(서대문구 창천동)



<위> 소풍가는 고양이의 도시락

<아래> 소풍가는 고양이_ 성산동 매장 전경

2011 하자센터 연간보도자료에서 하자센터에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담담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고, 그 앞가림이 실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동료를 살리는 '일'이 되는 프로젝트이다. (재)아름다운재단이 후원하고 하자센터가 기획 및 진행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자격증 위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적인 감수성을 기르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보하는 대안적 진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적기업 인턴십 과정을 진행해본 결과를 반성하고 보완한 해법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실제 일을 통해 '일머리를 키우고 자립기반을 만들고자' 청소년 창업을 하였다. 연금술사 프로젝트 청소년 창업의 특징은 첫째,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직면한 생계비 마련이라는 과제를 진로와 연결하여 길잡이(어른 동료)와 함께 일하며 일과 학습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자신의 일과 삶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창업자를 장인으로 모시고 창업의 콘셉트부터 방향까지 함께 모색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창업을 구체화하였다.

고민하는 점과 넘어서야 하는 점을 구별하고 스스로 넘어서야 하는 것을 '일'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청소년들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수혜자에서 주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배움을 실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

<< a c t >>

청소년의 자립 및 일 학습을 위한 2개의 청소년 매장을 창업하여, 청소년의 자기 길 찾기 및 일머리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일터로 성장시키고 있다.

< 연금술사 1호 매장 '소풍가는 고양이' >

장소 : 마포구 성산동 68번지(성미산 마을 내에 위치)
 특징 : 커뮤니티형 창업모델로 성미산마을 커뮤니티에 있는 유기농 반찬가게 '동네부엌'과 협업하여 배달 중심 도시락 매장이란 콘셉트로 창업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성미산 마을

커뮤니티에서 살고 배우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과 학습'을 경험했다. 이들은 소유 및 운영 상으로 구체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사례로 진화하고 있다.

< 연금술사 2호 매장 '달콤한 Co-끼리' >

장소 : 서대문구 창천동(2호선 신촌역 4번 출구 직진 3분 거리)
 특징 : 비즈니스 창업 모델로 '이샘 컵케이크'와 협업해 유기농 수제 컵케이크 카페로 창업했다. 컵케이크 생산 판매 외에 '청년, 환경, 건강'을 키워드로 한 청(소)년 커뮤니티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콘셉트는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리한 창업 사례를 교육하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가르치는 매장'이며 1년을 기준으로 일학습 주니어, 시니어 과정을 운영하는 대물림 순환 매장이다.

<< c h a n g e

연금술사 프로젝트 청소년 창업은 ‘청소년의 자기 길 찾기’와 ‘주인 되기’ 과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올해 1년은 일을 직접 수행하며 ‘사업과 일에 주체가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는데 향후 경험에 초점을 둔 1년의 과정에서 ‘자기 길 찾기’를 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자 한다.

청소년 일+배움이 지속가능한 ‘마을과 사회 협력 창업매장’ 운영 시스템 구축

연금술사 청소년 매장은 2012년 하자센터로부터 조직적 독립을 하면서 (주)연금술사로 전환하고, 자립 재정과 사회적 협력 가치 실현 그리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안정감과 배우는 기쁨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 시장 시스템에서 경쟁력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들의 가게이자 회사로서 가치를 가지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마을과 사회 협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2년은 이를 실험하는 해이자 초기모델을 만들어내는 해가 될 것이다.

창업 모델 사례 정리 및 확산

청소년 창업인 경우 실제적인 일과 자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청소년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이에 연금술사 창업 경험을 정리하고, 청소년 창업의 새로운 모델과 길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금술사 프로젝트 영상물을 제작하고 사례 자료집을 발간해 모델 확산을 모색하고자 한다.



<< m o r e i n f o

‘소풍가는 고양이’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ogo5090>

‘달콤한 Co-끼리’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alcocupcake>

청소년허브 << 네트워크 학교 << 영셰프

대상 : 요리로 자립하고자 하는 17세~23세
취약계층 청소년 및 탈학교 청소년

기획 및 운영 : 오가니제이션 요리

진행 기간: 2010년 ~ 2011년 현재

장소 : 하자센터 내 '영셰프 밥집(급식 식당)', 카페 '그래서'



<위> 영셰프들

<아래> 영셰프 수료식

2011 하자센터 연간보급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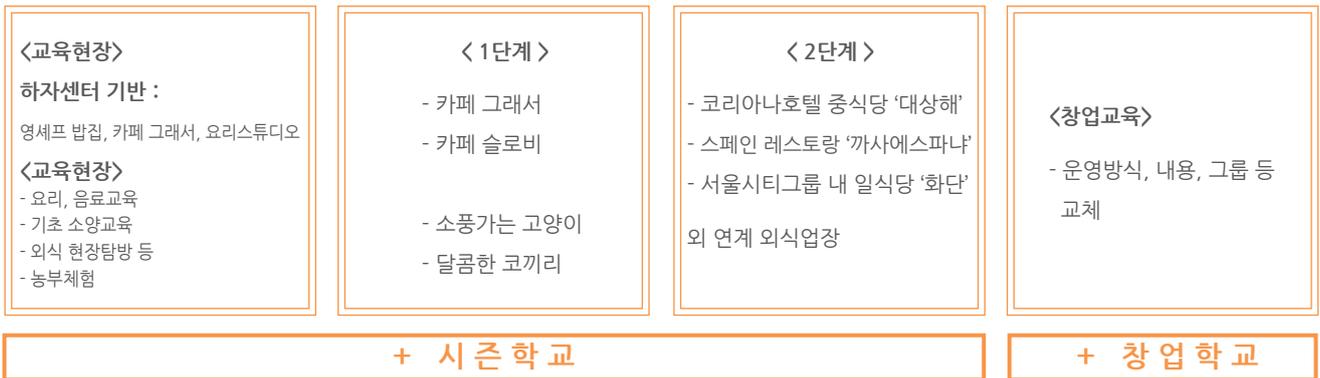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 영셰프'는 가정 해체, 저소득, 탈학교 등의 문제로 정서적인 지지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교육 과정이다. 영국의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Jamie Oliver)의 요리학교 '피프틴(Fifteen)'을 롤모델 삼아 시작한 영셰프는 17~23세 사이의 취약계층 청소년 및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과 학습이 결합된 통합적인 학습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요리교육의 기본과정은 '현장'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있다. 현장 기반의 요리학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키우게 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 시스템은 공동체의 감수성을 키우게 한다. 총 교육과정은 1년이며 수료 후에는 인턴십 -> 취업 -> 창업 순으로 심화과정을 밟게 된다.

영셰프 프로젝트 학습과정

1년 트레이닝

인턴십 / 취업

창업



영셰프들은 하자센터 내 급식 식당인 '영셰프 밥집'과 '카페 그래서'를 직접 운영하면서 기초 요리와 서비스, 관리, 경영 등 전반적인 과정을 생동감 있게 배우게 된다. 이러한 현장 중심 학습의 목적은 영셰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하는 감각', 즉 '일머리'를 키우는 데에 있다. 이와 함께 영셰프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로는 실제 농사짓는 법을 배우는 농부체험을 들 수 있다. 매월 첫째 월요일 이전 읍면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권순호 농부 님으로 찾아가 요리사로서 알아야 할 우리 농산물의 수확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농부가 흘리는 땀의 의미와 마음가짐을 배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다. 자연과 사람, 커뮤니티와의 만남은 영셰프들에게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준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영셰프들은 실질적인 직업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자립의 발판을 만들어 가게 된다. 프로젝트 과정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맺기와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결국 요리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영셰프가 되는 것이다.

<< a c t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던 영셰프 1기는 12명으로 출발해 6명이 수료했다. 참여자들의 구성을 보면 취약계층이 91%, 탈학교 청소년이 9%였으며 수료 청소년 6명은 취업(2명), 인턴십(2명), 진로설계(2명) 등 각각의 진로를 선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후원을 받았던 1기와는 달리 2011년 영셰프 2기는 하자센터와 함께일하는재단의 후원 속에 진행되었는데 2월에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3월부터 9명의 참여 청소년들과 본격적인 과정을 밟아서 12월 6명이 수료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취약계층 70%, 탈학교 청소년 30%였으며 수료한 6명 중 3명이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인턴십을 선택했다. 이외에 취업 1명, 취업준비 중 1명, 진로설계 중 1명이다.

2010년에는 요리실습 위주의 아카데미식 교육이 위주였다면 2011년에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 통합교육으로 전환했으며 요리 실습은 특강 중심으로 진행했다. 위생, 서비스, 경영 수업도 진행했으며 슬로푸드&미각교육, 농부체험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요리사로서의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 달시장 등 하자센터 및 연계 네트워크의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경험을 통해 현장감각 및 커뮤니티 감각을 키웠다.

<< c h a n g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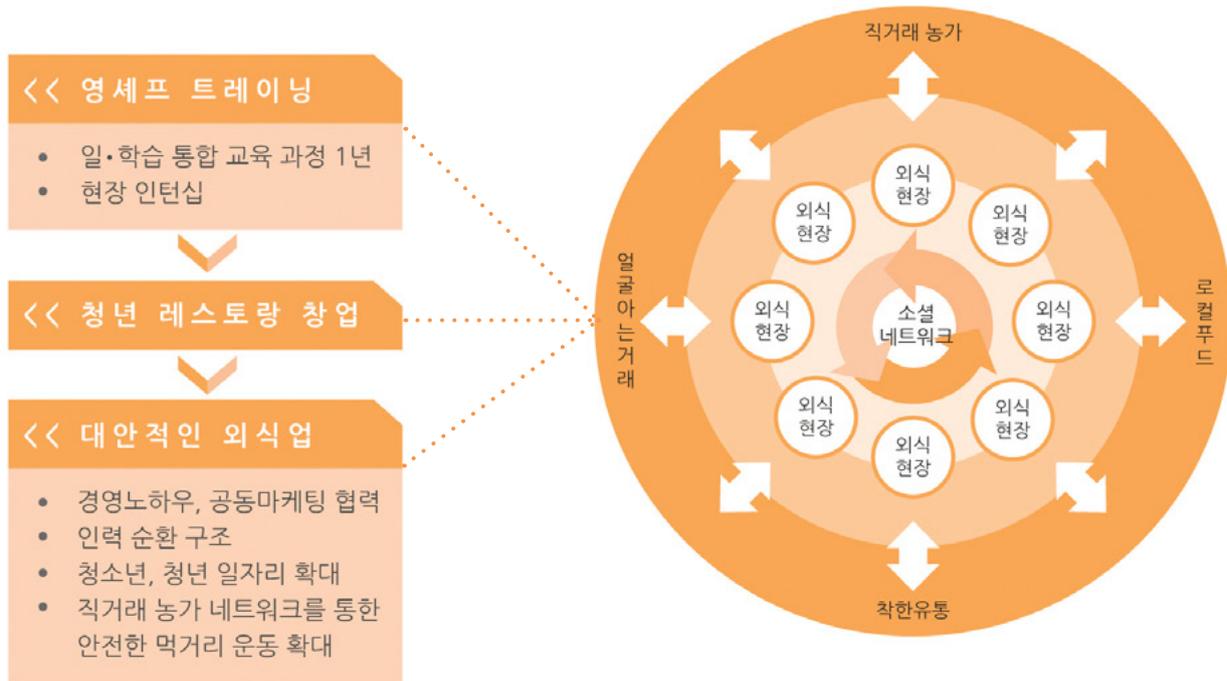
2012년 영셰프 3기는 1월 사업설명회, 2월 모집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3월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영셰프 3기는 1기와 2기의 과정을 보완하여 일·학습 체제를 지속하면서 요리실습 등 배움의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다양한 학습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요리를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교류 프로그램을 시존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셰프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사회적 자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일과 학습이 결합된 현장기반의 통합적인 학습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커뮤니티로서의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2012년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에는 영셰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청년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 '청년 레스토랑'은 영셰프들을 함께 키우고 돌보고자 하는 사회적 자원들의 연대를 통해 인큐베이팅될 예정이고 나아가 대안적인 외식업의 생태계가 될 것이다.

<< m o r e i n f o

페이스북 <http://facebook.com/youngchef8>

블로그 <http://blog.naver.com/youngchef>



영셰프 프로젝트 비전

청소년허브 << 네트워크 학교 << 집밖에서유유자적

대상 : 서울, 수도권 거주 혹은 통학 가능한 15-24세 청소년으로 저마다의 사정으로 일반학교나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종일 집에서 지내는 경우. (서류상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도 무관)

진행기간 : 주 3회, 3개월

장소 : 하자센터 내외

기획 및 운영 :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



2011 하자센터 연례보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는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무중력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무중력청소년’은 학교교육/직업훈련 등 각종 사회적 중력 바깥에 위치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된 청소년을 뜻하는 말이다. ‘집밖에서유유자적’에 참여하면 유쾌한 뮤지션들과 함께 놀면서 음악을 배우고 밴드를 만들어 공연에 도전하게 된다. 일주일에 두 번은 음악을 배우고, 한 번은 산책을 하거나 만화책을 보기도 하며 다같이 유유자적하게 지내게 된다. 주 3회, 3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끝나갈 즈음이면 어느새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순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아니다. ‘집밖에서유유자적’은 밴드 음악을 중심으로 한다. 밴드 음악은 또 다른 종류의 대화이자 소통이다. 다른 멤버의 악기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쌓을 수 있고, 내 소리를 듣고 또 다른 멤버가 나의 소리 위에 자신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추가한다. 다른 친구들과 연습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밴드를 같이 하게 될 친구들과 음악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유자적한’ 활동들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도 같이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다.

한 기수가 마무리될 때는 초청한 손님들 앞에서 모두가 공연에 도전한다. 홀로 고립되었던 청소년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며, 역시 주인공이 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렇게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그동안 준비했던 음악들을 연주하고, 박수를 받고, 나뿐만 아니라 밴드 멤버 모두가 갈채를 받는 경험이 ‘밴드’라는 멋진 커뮤니티를 만들게 한다. 그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데뷔하는 순간이다.

<< a c t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는 2010년 9월, MEET-ribe(미트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2012년 3월 현재 총 4기를 운영했으며 한 기수 당 평균 6~7명의 무중력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기수 당 기간은 3개월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 안에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익히는 과정, 같이 손잡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은근하게 담아냈다. 주 3회 활동으로 짜여지는데, 음악수업이 1주일에 2회 이루어지고, 1회는 만화책을 보고 간식을 먹고 영화를 보는 편안한 활동부터 흥대 클럽 공연 관람, 미술관 견학, 요리 등 다양한 외부 활동으로 진행된다.

‘집밖에서유유자적’과 함께한 유유자적 청소년들은 유유자적 살롱이 기획하는 소소한 공연에 참여하기도 하고, 밴드를 조직해 자작곡을 만들어 녹음하기도 한다. 한 기수가 끝날 때마다 열리는 ‘부족파티’는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족을 만나는 신호로서, 가족, 친구들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님들이 음악을 즐기기에 모여드는 축제가 되었다. 재미와 감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집밖에서유유자적’만의 즐거운 이벤트로 자리잡은 것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해당 문제의 연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으로 꼽히고 있는 유유자적살롱은 최근 일본의 연구자들과 포럼 및 심포지엄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기도 하다.

<< c h a n g e

2012년에는 두 개 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3개월 진행이므로, 4월 초부터 6월 중순(5기), 8월 중순~11월 말(6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이 미확정인 것은 프로젝트의 특성상 집밖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만나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날씨 등 외부 제약이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프로젝트 참여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기수 사이의 모집 기간을 길게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유자적살롱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뿐만 아니라 이미 프로젝트를 마친 친구들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지원을 더욱 체계화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프로젝트를 끝낸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수능, 아르바이트, 유자살롱과 관련된 공연 기획,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밖에서유유자적'을 포함해 또 다른 커뮤니티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멘토링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유자적 청소년의 진로, 적성, 자활, 자립에 관련된 기업, 단체, 그룹들과 연계하는 노력들도 진행 중이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100%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아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는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며, 그들과 시기가 맞지 않았던 '집밖에서유유자적'의 미흡함도 있었다. 다만 '집밖에서유유자적'은 친구로서, 즐거운 악기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로서 앞으로도 오직 '유유자적하게' 기다릴 작정이다. 우리는 꾸준히 무중력 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와 연락하며 격려할 것이다. 그들이 집밖으로 나와 같이 놀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yoojasalon.net/>

페이스북 <http://facebook.com/yoojasalon>



청소년허브 << 창의 커뮤니티 스쿨 >> 청소년 생태디자인 프로젝트 '자.란.다' 2기

대상 : 옥상농원의 텃밭 가꾸기와 창의/생태적인 디자인을 함께 할 15-19세 청소년

진행기간 : 2011년 4월 ~ 6월(월 2회, 1회 3~4시간)

장소 : 하자센터 내부(허브 목공방, 옥상농원, 워크룸)
외부(삼청동, 팔판동 일대)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하자센터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청소년 생태디자인 프로젝트 '자.란.다'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도시 청소년들이 하자센터의 옥상농원을 매개로 흙, 녹지, 사람을 만나고, 일상 속 도심의 텃밭이 새로운 만남/놀이/배움/연대/창조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었다. 이들은 또래는 물론 멘토들과 함께 하자센터의 옥상공간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보면서 예술적 상상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나아가 이 경험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친구, 가족, 이웃들과 나누면서 스스로 생태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하도록 구성했다.

<< a c t >>

2010년 청소년 도시농부 프로젝트로 시작한 '자.란.다' 1기는 2011년에는 옥상농원의 텃밭공간을 새로이 상상하고 목공작업을 통해 만들어보는 생태디자인 프로젝트로 변모했다. '자.란.다' 2기는 텃밭과 생태라는 기본 키워드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디자인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요소를 접목하여 기획되었다. 실제로 참가자들의 마지막 회고를 통해 워크숍을 통한 실제적인 결과물이 나왔다는 사실에 가장 큰 만족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했던 텃밭 상상도를 바탕으로 목공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텃밭상자를 모티프로 공간을 완성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텃밭상자/텃밭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자센터 신관 지하에 새로 오픈한 삶디자인 공방과 연결해 이곳 장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꾸고 만든다'는 기존 학습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과정을 경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그들이 손수 만든 결과물(텃밭상자와 텃밭 수확물 등)은 참여 청소년들은 물론 가족과 친구, 또 이 프로젝트를 관심있게 지켜본 센터 내부의 스태프 등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화자 자리를 통해 나누었다.



< 프로그램 구성 >

3월 8일(화) ~4월 3일(금) 참가신청 접수

4월 9일(토) 1차 모임

: 오리엔테이션 / 미니강의 / 텃밭일구기 / 텃밭상상도 그리기

4월 23일(토) 2차 모임

: 도심의 생태적 공간탐방 / '도시농부의 하루' 전시 관람 / 건강한 밥상 체험

5월 14일(토) 3차 모임 _ 목공디자인 워크숍 (1) _ 텃밭상자 디자인 및 제작 / 텃밭활동 / 농원 채색작업

5월 28일(토) 4차 모임 _ 목공디자인 워크숍 (2) _ 텃밭상자 제작 / 텃밭활동

6월 11일(토) 5차 모임 _ 목공디자인 워크숍 (3) _ 텃밭상자 제작 / 텃밭활동

6월 25일(토) 6차 모임 _ 쇼하자 _ 텃밭 완성 / 샐러드 파티 / 회고

<< c h a n g e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텃밭은 물론 먹거리 안전, 동물의 권리 등 다양한 이슈로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하자센터 외부 청소년은 물론 하자센터 내부의 다양한 네트워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생태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상상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m o r e i n f o

온라인 카페 <http://cafe.naver.com/2010jaranda>



청소년허브 << 창의 커뮤니티 스쿨 >> 필통넷 | 온라인 학습생태계

대상 : 필통넷, 하자넷을 통해 웹에 접근하는
5천 700여명의 청소년 및 전 연령 대상

진행기간 : 2011년 2월 ~ 현재 (항시 운영)

웹사이트 : <http://filltong.net>

2011 하자센터 청소년 허브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필통넷은 개인과 개인의 지식과 정보가 일상적인 기록으로부터 연결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반으로 만들어진, 평생학습 시대를 준비하는 '온라인 학습 생태계(Online Learning Eco System)'이다. 현재 이 온라인 학습생태계 프로젝트는 하자센터와 자발적인 필통 주민들이 함께 만든다. 2010년까지는 웹과 청소년 교육 및 활동 전문가들이 필통넷을 기획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웹사이트 안에서 성장한 10대, 20대들이 자기 영역의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했고, 필통넷 자원활동가를 지원했다. 필통넷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용성과 모바일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직접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미약했다. 이 때문에 2011년에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에 집중해서 아카이브하자와 연결체제를 마련했고, 성미산 느티나무 도서관 같은 타 기관과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을 통해 아카이브하자로 연결된 인프라를 구성했고, 필통밋업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의 모바일 기반에 접근했다. 2012년에는 '무한대학교'라는 온라인 대학교를 시작하면서 대학, 학교의 교과서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을 계획중이다.

<< a c t >>

< 모여라, 필통 자원활동가! >

모두 6명의 멤버가 3개월 동안 업무를 진행했다. 이들 자원활동가들은 필통에서 성장한 10대 혹은 그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20대들로 구성되었다.

자원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로 '현장 네트워크'와 '강의 코디네이터'. '현장 네트워크'는 아카이브하자를 이용할 작은 학교, 마을, 공간, 도서관 등 비영리기관들을 직접 만나고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했으며 '강의 코디네이터'는 필통에서 구현할 온라인 대학의 형태와 내용을 구성하는 일을 했다. 매주 월요일에는 하자센터에 모여 각 팀간 일주일 간의 상황을 공유하고 회의하며 수다도 떨고 저녁에는 회식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통 초기화면

< 현장 네트워크 >

참여자/ 씬(수유너머 N/R), 고녕, 해니(성미산 마을), 운짱(유스보이스 랩, 느티나무도서관, 부인중학교)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와 학습이 실제로 지속, 운영되려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함께 있어야 한다. 온-오프라인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임이 일어날 때 비로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배움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필통넷이 수년 간 오프라인 번개와 이벤트를 만들어 오며 알게 된 작은 깨달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필통넷은 온라인에서의 아카이브와 커뮤니티를 함께 할 지역의 공간을 찾고 협력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작은 학교, 학습 공동체, 도서관, (예비) 사회적기업 등 지역의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배움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여러 비영리기관이다. 특히 아카이브 하자는 자료와 정보들이 10대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10대들도 얻고 싶어하는 정보와 이벤트를 갖고 있는 기관을 우선으로 염두에 두었다. 이 중 2011년에 필통넷이 함께 하고자 손을 내밀었던 기관은 수유너머 N/R, 성미산 마을, 유스보이스 랩, 느티나무도서관이다. 목표는 2012년 1월 론칭한 아카이브하자 서비스를 각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운영진

중에서 온라인 담당자이거나 온라인과 친숙한 구성원, 또 기관 내에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웹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구성원을 찾고 만나서 이야기 하고 설득했다.

< 강의 코디네이터 >

참여자 / 담, 지화자, 썬(무한∞대)

OCW, OER 등 온라인을 통해 대학의 강의를 공개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Apple에서는 iTunesU, iBooks2, iTunes Author를 런칭하면서 강의뿐만 아니라 Textbook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한 강의 코스 전체를 볼 수 있게 함은 물론 Textbook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 (+) 학교를 벗어난 배움, 그 이유. 평생학습시대, 시민대학의 가능성 >

이런 취지 하에서, 필통넷은 온라인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즉 온라인 대학을 만들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배움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학의 모습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배움의 방식에는 역시 선생님과 학생이 있고, 하나의 주제를 잘 아는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쳐주는 방식, 학교에서 가장 익숙한 ‘강의’의 틀이 있다. 하지만 혼자, 혹은 여럿이서 자신의 관심사, 수많은 주제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배움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방식을 (축구리그 승강제를 본따) 1부 리그, 후자를 2부 리그라고 이름 붙여보았다.

1부 리그는 물리적인 공간(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차례의 수업을 듣는 방식의 ‘강의’, 2부 리그는 개인 혹은 다수가 관심 있는 공통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유하는 아카이브 기반의 커뮤니티 ‘컬렉션’으로 진행된다. 1부 리그는 최대 8개 강의를 한 번에 진행되고, 한 학기를 진행한다. 2부 리그는 언제든지 만들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주제도 무한대이다.

1부 리그의 강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영상 제작을 생각했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환경 등이 열악해 힘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새로운 강의 공유 방식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Textbook이다. 하나의 강의는 여러 개의 Chapter가 묶여 진행되는데, 이를 글로 풀어 쓰면 Textbook이 된다. 이를 온라인에서 함께 읽고, 강의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의 강의를 기획했다.

2부 리그에서는 필통넷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태그’와

‘컬렉션’ 서비스를 보완, 발전 시키려고 한다. 즉 누구나 특목을 통해 태그를 발행할 수 있고, 이 중 ‘컬렉션’ 서비스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큐레이터가 된 유저가 여러 특목들 중 자신의 ‘컬렉션’ 주제에 맞는 특목들을 모아 완성하는 방식이 현재의 서비스이다.

<< c h a n g e >>

필통 프로젝트

필통넷(filltong.net)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배움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생태계이다. 이 곳에서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담은 수업을 동료들과 기획하고 함께 배우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꿈꾸고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특별을 통해 십대와 학습을 지원하는 시니어 그룹들이 언제든지 학습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한∞대 <http://muhan.univ.ac.kr> (론칭 준비중)
필통넷은 학교를 넘어선 배움, 개인의 맥락과 욕구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학교의 모습을 상상한다. 온라인 대학 ‘무한∞대’에서 제공하는 강의와 교과서를 통해 우리는 시공간과 잔액 부족의 한계를 넘어 수업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다.

클립 보드

OCW, OER 등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영상 강의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지역, 어떤 개인의 맥락에서 이 정보들이 재구성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배움을 경험 할 수 있게 된다. ‘무한∞대’에서는 온라인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개인 혹은 동료들이 큐레이팅하여 새로운 클립 보드를 만들어내고,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아카이브 하자

아카이브(Archive)는 과거의 문서, 자료를 기록, 보존하는 공간이다. 만일 아카이브의 정보를 웹에서 언제든지 쉽게 열람, 참고, 전달할 수 있다면,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아카이브 하자(archive.haja.net)’는 10대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 서비스이다. ‘무한∞대’의 강의와 ‘클립 보드’의 컬렉션 서비스 역시 아카이브라는 형식에 기반하고 있다.

<< m o r e i n f o >>

필통넷 <http://filltong.net>

아카이브 하자 <http://archive.haja.net>

청소년허브 << 창의 커뮤니티 스쿨 >> 청소년 창의위원회 '오 트레커'

대상 : 하자센터 운영 전반에 관심있는 만 13~24세 청소년

진행 기간 : 2011년 2월~11월
(월평균 1회 이상 모임, 회당 3~4시간)

장소 : 하자센터 및 외부(성곽길, 여의도 한강공원)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하자센터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발족하였으며, 센터 전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 왔다. 지난 2010년부터는 하자창의허브 개관에 맞춰 청소년창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단순 모니터링과 제안을 넘어서 하자센터 내 여러 그룹과 프로젝트들을 접하면서 감성과 사고 통로를 발견하는 등 참여자들도 상호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11년에는 하자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두루 모여 '하자마을'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세팅했다. 또한 이러한 소통이 하자의 실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했다. 나아가 이들 참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경험을 제공해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하자센터와 잠재적인 파트너로서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 고자 했다. 2011년은 특히 'O Trekker(오 트레커)'라는 별칭을 달고 활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팔로 껴안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의 15번째 글자 'O'와 여행자를 뜻하는 'Trekker'의 조합으로 완성된 이름으로, 하자안팎을 누비며 함께 경험하고 성장할 15명의 청소년창의위원을 뜻한다.



<위> 정기 모임

<아래> 영화 제작 워크숍

<< a c t >>

청소년창의위원회는 모집을 통해 개인 신청서를 접수 후 선발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2월 12일 1차 모임을 갖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다음 주 토요일에는 2차 모임으로 하자센터 내의 다양한 주체 및 프로그램과의 만남 그 첫 번째 장으로 하자창의허브에 자리잡은 삶디자인공방 멤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세 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주력했던 프로젝트는 하자옥상농원을 위한 잡지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해보는 일. 5월 7일에는 청년 문화작업자들과 함께 성곽길 등을 순례하는 지역탐방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6월 초 상반기 활동을 회고 및 결산하고 여름방학 등 하절기에는 개개인 일정과 하자센터 내 프로젝트들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

이후 상반기 결산모임을 통해 하반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를 영상(단편영화)으로 만들기로 결정, 10~11월 두 달간 "일상에 찌들고 지친 청소년들, 어떻게 즐겁고 재미난 순간을 만들어갈까?"라는 주제로 여러번의 워크숍을 통해 영화를 만들기에 이른다. 실제 트레커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학교-집-학교-집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싫지만 딱히 벗어날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친구와 함께 노래를 듣고, 노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주인공', '대학생이 되어도 아르바이트에 치여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인공' 등의 이야기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직접 출연/촬영을 하면서 완성한 영화는 2011년 11월 26일 트레커들의 쇼하자를 통해 공개되었다.

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이디어 제안과 같은 기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올해 청소년창의위원회는 참여 청소년들에게 더 큰 동기 부여와 참여 욕구를 복돋기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대표적인 자체 기획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영상 제작으로서, 상반기 결산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결정하고 기획 하였으며 제작과정을 거쳐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상/하반기 모임 횟수를 지난해보다 늘린 것도 더 친밀한 커뮤니티 구축, 의견 개진의 자발성이나 적극성을 복돋우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중학생부터 대학생, 비진학 홈스쿨러 등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모여 나이나 환경의 차이를 넘어 청소년 현실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실제 활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 c h a n g e

참여자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자체 프로젝트 운영도 좋지만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모니터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 모임이 시험, 소풍 등 학교 학사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하자센터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활동 내용을 이해하고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공간/이용/접근 가능성/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청소년들의 요구와 맞는 실효성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깊이있게 나눌 수 있는 효율적인 회의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 m o r e i n f o

온라인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creativecommittee>

영상 보기 <http://vimeo.com/32771947>



청소년허브 << 창의 커뮤니티 스쿨 >> 청소년 창의캠프 C-cube

대상 : '2011년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참가학생 및 각 특성화고 학교장 추천 학생

진행 기간 : 1차 2011년 8월 8일 ~ 8월 10일(3일간)
2차 2011년 8월 11일 ~ 8월 13일(3일간)
총 2회 진행, 회당 100명 참여

장소 : 하자센터 내 신관 303호, 302호



<위> 내 맘대로 소리내기 / <아래> 이것은 그냥 사진이 아니다

<< i m a g i n e >>

2009년부터 3년째 매년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청소년 창의캠프 C-cube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일상과 연결시켜 공동의 창의성을 발견해보는 프로젝트형 캠프이다. 매년 공공의 창의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2011년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창의성'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 주제 하에 공통 워크숍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하게 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한 연습 과정을 경험하게 기획했다. 또한 발상의 전환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창의 워크숍을 배치함으로써 창의성 시각의 확대를 돕도록 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일차적 체험을 넘어서 심화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하자센터는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주관되는 청소년 창의캠프 C-cube를 집중적이고 심화된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여름방학에 집중 운영되는 창의캠프는 대규모 1회성 특강 등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기존 형식을 지양하고 그들 특유의 관심과 이슈를 개발하면서 또래 집단, 선배 등과의 직접적인 팀워크 경험과 체험 워크숍 등을 통해 생활과 창의를 연결시켜 '학습으로서의 창의, 생활에서의 창의적 접근법, 공동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a c t >>

회당 3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로, 첫 날은 공동의 창의성을 발견하기 위한 공통 워크숍(소셜디자인 워크숍)과 창의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인사의 강연을 듣는 창의특강으로 구성했으며, 둘째 날은 상상력 증진과 창의적 시각을 넓히기 위한 창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은 쇼하자를 통해 팀별 질문에 따른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통합적 경험을 통해 창의성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일상의 관찰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공동의 창의'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팀의 멘토로 사전에 모집한 20대 청년 활동가 그룹인 '큐비스트'를 배치, 10대 참가자와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고 받게 해, 짧은 시간이지만 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큐비스트'의 경우 창의캠프와 관련된 사전 정보 및 참가자들과의 만남, 공통 워크숍인 소셜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역할 등을 전달하는 워크숍을 4차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전문 영역을 가진 팀과의 워크숍 기획과 진행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체 워크숍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시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다.

주요 프로그램 리스트

이름	내용	진행팀
창의특강	지역 커뮤니티를 무대로 환경 이슈에 집중한 공공 인터페이스를 실천, 표현하는 활동가와 '더불어 사는 창의적 삶'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하워드 첸 (홍콩, 공공예술가)
소셜디자인 워크숍	많은 이들이 동참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의적 해결을 질문으로 접근해 찾아내고 실행을 기획한다.	큐비스트와 참여자 각 팀
음악 + 상상 텔레포트 - 내 몸에서 창의성 찾기	청각이 열어주는 상상을 토대로 쉽고 재미있게 음악을 만들어보는 워크숍.	노리단
창의적 삶의 리허설 - 스토리텔링 포럼연극	신입사원이 직장 내에서 겪는 문제를 연극으로 경험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본다.	이야기꾼의 책공연
머핀가게 사장되기 - 모의 창업 워크숍	모의창업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본다.	오가니제이션 요리
뮤직 스크램블 - 내 생각을 표현하는 노래 리메이킹	아이돌 음악과 국내외 명곡들을 뒤섞어(Scramble)본 후 새로운 노래를 완성해본다.	유유자적살롱
공간을 옮겨라 - 공간을 창의적으로 인식하기	신체의 길이감각과 수학적 사 고력을 통해 일상공간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보는 워크숍.	조슈아나무
점(dot)으로 만드는 음악 - 즉흥적으로 음악 만들기	점의 위치로 리듬과 멜로디를 만들고 고쳐가며 쉽고 즐겁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본다.	유니버설 닷 오케스트라
내 맘대로 소리내기 - 영상, 소리 공연	소리를 제거한 영상에 새로운 대사와 효과음, 배경음을 입히며 상상력을 발휘해본다.	뿔난 고양이
이것은 그냥 사진이 아니다 -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글자	익숙한 풍경과 사물들을 다른 종류의 시각 정보로 재해석, 재구성해보는 워크숍	네시; 이십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전거 구하기 - Let them know what we want to change	이동수단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자전거를 구하는 메시지를 만든다.	교육사업단

<< c h a n g e

사후 설문 조사를 통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집계되어 창의 캠프가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의미, 재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족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캠프 첫째 날의 창의특강은 37.4%, 소셜디자인 워크숍은 49.7%였으며 창의워크숍이 있었던 둘째 날은 95.7%, 셋째 날 소하자에 대한 만족도는 83.4%였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둘째 날을 보면, 참가자들이 역동적인 창의워크숍을 통해 또래끼리 친밀해지고 몰입도까지 상승하면서 활동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음악, 디자인 등 다감각적 장르를 기반으로 흥미롭게 진행하는 강사들의 수업방식, 팀별 결과물 작업 등 여러 요소들이 적절하게 결합되면서 동기 부여와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2012년 창의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창의워크숍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일정을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반면 팀별로 진행된 공통 워크숍(소셜디자인 워크숍)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참가자들이 전체 주제와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 자원활동가 그룹 등 실제 진행팀과의 사전 기획 과정에서 전체적인 캠프의 주제와 키워드를 참여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수시로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참가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약한 청년 자원활동가 그룹 '큐비스트'의 경우 4차에 걸친 사전워크숍이 도움이 되긴 했으나 역할 자체가 참가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부담감이 컸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예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난점들을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캠프 기간 동안에도 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별도의 장치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 m o r e i n f o

아카이브 하자
<http://archive.haja.net/archives/view/144>

스케치 동영상
 1차 <https://vimeo.com/40638979>
 2차 <https://vimeo.com/40644437>

청소년허브 << 진로 커뮤니티 스쿨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대상 : 14세~19세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
 진행 기간 : 2011년 1월~12월
 장소 : 하자센터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청소년기에 가장 고민하는 주제인 '진로'에 대하여 멘토와의 만남과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 탐색해 보는 프로젝트이다. 참여자들은 멘토가 들려주는 직업 이야기를 들으며 이후 워크숍을 통해 직업을 체험해보게 된다. '강의'보다는 '체험'에 비중을 두어 몸으로 익히고 놀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창조산업분야 직업군으로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마다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각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교과목의 일부로 편성됨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교과서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체험이 강조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교수업과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a c t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진로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 참여자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일일직업체험에는 전국의 학교, 청소년 기관, 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학교로서, 지정된 진로체험의 날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계발활동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혁신학교인 부천 부인중학교와 MOU를 맺고 창업교육과 더불어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일일직업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개별 프로그램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라디오 855명 / 그래피티 439명 / 명함 248명
 / 보컬 656명 / 영상 1,167명 / 모델 32명

메이크업 879명 / 패션디자인 815명 / 게임 543명
 / 뮤지컬 458명 / 천연염색 159명

네일아트 358명 / 분장 712명 / 스트리트댄스 90명
 / 포장디자인 153명 / 플로리스트 152명

POP광고디자인 128명 / 마술 682명 / MC 66명
 / 총 8,583명

진로교육에 있어 학교, 기관 등 단체참여 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의 참여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커리어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일일직업체험과 연계 진행하기도 했다. 일일직업체험 세부 프로그램 가운데 디자인 분야, 공연예술 분야, 영상분야를 선별하여 토크와 워크숍이 연계된 형태로 진행된 커리어데이는 일일직업체험에 참여하지 못했던 개인 단위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었고, 이 중 직업인들의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담은 커리어토크는 이후 여름에 열린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했다.

<< c h a n g e

6년 동안 일관된 포맷으로 진행된 일일직업체험은 여전히 흥미 유발과 재미에 있어 유효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1회 2시간 진행이라는 틀 속에서 하자센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일'과 '직업'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고, 그 안에서 '직업'이 갖는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일직업체험은 기존 문화예술 분야 직업군에 치중되어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점진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한다. 프로그램 확산의 경우 직접 학교나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는 지역의 기관과 단체 스스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자생적인 확산모델을 고민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청소년허브 << 진로 커뮤니티 스쿨 << 커리어데이

대상 : 14세~19세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

진행 기간

2011년 4월 23일 디자인 분야 :

패션디자인 / 플로리스트 / 그래피티 / 명함디자인

2011년 5월 28일 공연예술 분야 :

스트리트댄스 / 보컬 / 랩슬램 / 뮤지컬

2011년 6월 25일 영상, 애니메이션 분야 :

영상 / 애니메이션

장소 : 하자센터



2011 하자센터 청소년허브 커리어데이

<< i m a g i n e

커리어데이는 하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회성/대규모 인원 대상의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와 다회성/소수 인원 대상의 커리어워크, 두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개인 단위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획되었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받을 뿐,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한 분야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직업이 파생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이해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 이 때문에 커리어데이는 멘토의 이야기를 듣는 토크와 워크숍의 시간 비중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한 뒤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분류하고, 해당하는 직업 멘토를 청소년들과 모두 만나게 하는 토크쇼의 형태로 구성해 개개인이 관심있는 직업 분야의 멘토뿐 아니라 다른 분야 멘토들의 이야기도 듣게 해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후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밀도 있는 체험을 통하여 몸으로 익히는 직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동료로 관계맺음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했다.

<< a c t

< 프로그램 구성 >

1) 멘토와의 대화

- 10:00~11:30 (90분)

- 멘토 4명과 함께하는 직업과 현장 이야기 듣기

2) 분야별 체험

- 11:30~13:00 (90분)

- 일일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구성 (3~4가지 정도)

- 각 분야에 대한 짧은 이론 수업 + 체험 / 사회적기업과 연결한 기초 워크숍

<< c h a n g e

일일직업체험의 한계를 보완한 커리어데이는 멘토와 소수의 개인이 만나는 밀도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높은 만족도를 주었다. 참여 청소년 대부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실제 경험을 해 본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체험 형태의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커리어데이 진행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성과이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2012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었던 특별 진로설계 프로젝트 'Plan B_다양한 삶의 상상'에서는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라는 개념을 도입해 진행해 보았다. '리빙 라이브러리'는 덴마크의 사회운동가인 로니 에버겔이 2000년 창안했는데, 초대된 연사를 '사람책'으로, 그와 대화하고픈 이들을 '독자'로 상정해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듯 일정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대화하는 프로그램 형태다. 앞으로도 이 '리빙 라이브러리'를 진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해 개발하고자 한다. 멘토와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직업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성찰한다는 콘셉트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직업의 틀이 아닌,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을 중심으로 직업군을 설계하고 청소년들과 멘토의 색다른 만남의 장을 계획하고 있다.

청소년허브 << 진로 커뮤니티 스쿨 >>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대상 : 2010년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참가학생 및 각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학생

진행 기간 : 2011년 7월 26일~7월 29일(4일간)

장소 : 상암 DMC,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다양한 직업 분야 현장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커리어워크’는 디자인 스튜디오, 영화 촬영지, 레스토랑 등 다양한 직업의 현장을 찾아 선배들의 멘토링과 관찰,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적인 직업의 세계를 파악하고, 스스로의 진로 설계를 해 보는 심화형 프로젝트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며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과정’을 고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수입이나 안정성보다는 어떤 직업인이 될 것인지 알려주는 근본적인 진로설계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커리어워크의 특징은 단순히 현장을 탐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멘토가 돼 직접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영상 분야는 현역 프로듀서와 영화 감독이 멘토였으며, 대중음악은 현역 뮤지션들이 멘토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했다. 하자센터의 기획자와 진행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캠프를 만들어가고 있다.

작년도 커리어워크의 경우 대중음악, 디자인, 사진, 영상, 게임 등 창조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되었다. 올해는 학생들의 지망이 높았던 영상, 디자인 분야는 그대로 가져가되 IT, 여행·관광, 만화·애니메이션 등 현실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추가해 개최했다.

< 커리어워크의 키워드 >

Meet 나를 만나다

커리어워크는 교과서로 암기하는 학습형 캠프가 아니다. 학교와 집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사람과 환경, 새로운 정보를 만나며 배우는 시간. 참여자들에게는 모든 건물, 사람, 회사, 콘텐츠들이 학습 자원이 되고 대화와 배움의 대상이 된다. 4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강의·워크숍·현장 탐방·멘토와의 대화는 물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만나게 된다.



<위> 패션 분야 워크숍
<아래> 멘토와의 대화, 커리어토크

Share 고민과 경험을 나누다

혼자만의 질문으로 그치지 않게끔, 비슷한 환경과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들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친구들과 그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의 배움을 교환한다.

Change 스스로 길을 찾는 힘을 기르다

캠프를 떠나기 전, 진로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상상을 걷어낸다.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아낸다. 4일간의 경험을 단순히 좋은 추억으로만 남기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 낸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 a c t

올해에도 7월 26일~7월 29일까지 4일간, 작년에 이어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과 함께 했다. 100명의 참가자들은 15~20명씩 팀으로 나뉘어져 영상, 패션·재활용디자인, 외식 창업·경영, 만화·애니메이션, 여행, IT의 총 6개 분야 현장을 둘러봤다.

커리어 토크

캠프에서 만나게 될 6개 직업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 시간. 각자 참여할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의 멘토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었다. 선배들이 직접,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온 과정은 물론, 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기도 했다.

영화·영상 : 장성연(영화제작소 눈 대표)

패션·재활용 디자인 : 채수경(리블랭크 대표)

여행·관광 : 변형석(트래블러스 맵 대표)

만화·애니메이션 : 이영미
(문화예술교육연구소 그 꽃 대표)

외식 창업·경영 : 강은경(오가니제이션 요리 기획팀)

IT : 최승준(미디어 아티스트)

분야별 워크숍

커리어워크의 직업 분야는 매년,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해 기획된다. 2010년에는 영화·영상, 패션·재활용 디자인, 대중음악, 게임, 사진의 총 5개 분야의 직업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영화·영상, 패션·재활용 디자인 2개 분야는 계속 진행하되, 4개 분야를 신설했다. 새로운 분야는 바로, 여행·관광, 만화·애니메이션, 외식 창업·경영, IT.

캠프의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일반 워크숍·멘토와의 만남·현장 탐방 등 세 가지 형태의 분야별 워크숍을 체험한다. 참가자들은 때때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형태가 섞여 있는 워크숍을 경험했다.

쇼하자

4일의 캠프를 정리하며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해보는 시간. 발표회를 뜻하는 하자센터만의 고유한 표현이기도 하다. 캠프의 마지막 날,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한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c h a n g e

2011년에는 예술과 창의 분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과 수요를 고려한 외식 창업·경영, 만화·애니메이션, 여행·관광, IT 등 새로운 분야들이 추가되어 한층 역동적인 캠프가 된 모습이었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직업인의 세계를 살피며 현장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보는 계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IT나 여행, 외식창업 분야의 경우 학생들의 예상치와 프로그램 기획 방향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행 분야에 신청을 한 학생들은, 여행보다는 '관광'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기대가 컸고, IT의 경우는 IT 직종 안에도 세부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 신청 학생과 강사들 간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미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은 학생들부터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수준차가 컸던 탓이었다. 다행히 강사들은 첫 날 참가자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며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유연하게 바뀌어나갔다. 팀 당 부여되는 턱없이 낮은 비용의 진행비를 감안한다면, 눈에 띄지 않는 멘토군의 헌신적인 노력이 캠프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2년에는 3~4개 직업군을 추가하여 총 9~10개 분야의 직업군이 포함된 직업체험캠프로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직업군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새로이 발굴한 직업군이 포함될 것이다. 환경과 생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직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IT 분야의 경우에도 모집 시, 세부 분야를 자세히 명기하고 확대 모집할 예정이다.

<< m o r e i n f o

스케치 동영상 <https://vimeo.com/40699582>

청소년허브 << 진로 커뮤니티 스쿨 << 일취월짱 프로젝트

대상 : 청소년 개인

진행 기간: 2011년 1월 ~ 12월

장소 : 하자센터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진행한 일취월짱 프로젝트는 글쓰기,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청소년이 스스로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와 함께 주1회 방과 후에 참여하는 창의학습 활동이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와 토요일을 이용하여 공교육, 사교육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 분야 심화과정 강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단순한 해답 제시 차원을 넘어서 직업 탐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진로를 개발하고 싶은 흥미를 유발, 향후 진로설계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뮤지션, 레코딩 엔지니어, 보컬리스트, 작가, 그래피티 아티스트 등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문화작업자들을 강사로 초빙해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한편, 참가자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직업에 대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그들과의 일대일 수준에 준하는 수업을 통해 자신의 소질이나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후 일취월짱 전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발표회나 센터 내 다른 프로젝트 참여 유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 a c t

랩, 디제잉, 보컬, 글쓰기 등의 분야로 나뉘어진 일취월짱 프로젝트는 기초/심화 반으로 나뉘어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강사와 수강생의 심도 깊은 멘토링과 각 개인 수준별 학습을 위해 한 클래스 당 평균 10명의 소수 정예로 구성하였다. 또한 수업만 받는 게 아니라 세미나와 발표회 등을 직접 기획해 참가자들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 운영 상 등록과 결제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떠올라 2011년에는 웹 팀과 함께 등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그 결과 참여 수강생들이 한 번에 등록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관리자 입장에서 수강생 관리, 개·폐강 여부 확인, 공지 사항 전송 등 운영 전반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 c h a n g e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강형 강좌가 아닌 본격적인 작업장 형태의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세부 계획을 진행 중이다. 내·외부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음악 분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음악작업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작업장은 판돌 1인을 채용해 꾸려질 예정이며 관련 강좌들은 현업 음악 작업자들을 중심으로 결합해 운영될 계획이다.

청소년허브 <<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 제 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대상 : 국내외 청소년(16~24세)

진행 기간 : 2011년 7월 25일~31일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국립공원 및 여수 도심 (교동 시장 등), 여수 전역의 섬(백야도, 돌산도, 안도, 사도)과 바다(여자만)

참가 인원 : 53,900명(외국 청소년 1,214명, 국내 청소년 및 관람객 52,686명)



< 위 > 액션갤러리 바다

< 가운데 > 그린피스호와 함께한 청소년 기획단

< 아래 > 움직이는 작업장

<< i m a g i n e

1999년 제 1회가 개최된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2010년 까지 지역 기반의 종합 청소년 축제로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당 축제가 얼마나 ‘여수’라는 지역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제’축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사로 발전해 왔는지, 또한 이 축제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2011년 제 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의 총괄 큐레이팅을 맡게 된 하자센터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했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국제적 문화예술 교류 스튜디오 축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하는 참여형 청소년 축제

-기후변화 주제를 녹여낸 청소년 문화예술 미니 프리엑스포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기반으로 하자센터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계획, 준비,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여수국제 청소년축제를 세팅함으로써 청소년축제로서의 기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특히 준비 기간 동안 청소년 기획단을 사전에 조직해 청소년들이 형식적으로 어른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축제 판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또한 관람객과 청소년, 누구나 참여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했다.

이와 함께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바다와 연안 및 섬이라는 여수의 천혜환경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접목시킴으로써 지역 자원을 특화하고 이것이 전체 주제로 연결되는 청소년 축제를 지행하고자 했다. 기후변화라는 주제에서 출발, 전 세계 청소년들이 공통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전지구적 과제에 대한 문화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국내외적으로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런 방향성 아래서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참여형 문화예술 스튜디오 축제이자 참여형 교류 축제’라는 콘셉트로 여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국제적인 청소년 문화활동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 a c t

여수 축제는 크게 2011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열린 '사전 축제'와 7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열린 '본 축제'로 구성되었다.

7월 25일 여수에서 '무언가 움직이다'라는 제목의 청소년 축제단 발대식이 열리면서 축제가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는 전 세계 곳곳의 해외 청소년들이 속속 도착해 참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튿날인 7월 26일에는 전체 참가자들이 여수로 모여 '만나는 프로그램 : 환경나무파티'와 '오프닝토크: 기후변화시대의 청소년, 미래를 함께 상상하기'에 참여하였다. '만나는 프로그램 : 환경나무파티'는 전체 참가자가 처음으로 만나 팀을 배정하고 식사를 나누며 얼굴을 익히는 시간이었으며 오프닝토크를 통해서 기후변화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앞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공유함으로써 여수국제청소년축제의 특색을 살려냈다. 7월 27일에는 '글로벌쉬 워크숍'을 통해 축제 기간 동안 전 세계 청소년들이 언어 장벽 없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워크숍으로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는 기반을 만든 뒤 '재활용 악기 워크숍'과 '플레이 여수'에 참여하였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버려진 자재를 이용한 재활용 악기를 만들어 이를 연주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고안했고, 이를 여수 도심(진남체육관, 이순신광장, 여수시청 앞 안산공원, 전남대학교 앞, 여수시청 여서 청사 부근 등)에서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기회를 가졌다.

7월 28일~7월 29일에는 청소년 축제단이 여수 5대 권역을 누비며 여수의 땅과 바다, 사람을 만나는 여행 프로젝트, '나비효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자전거 발전기 만들기, 멸종위기사전 만들기, 기후변화 워크숍, 소리 워크숍, 탁본 워크숍, 합창 워크숍 등 권역별로 기후변화와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예술 기반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7월 30일~ 7월 31일은 본 축제 기간으로 사전 축제에 참가했던 청소년 축제단은 물론 여수 및 전국에서 온 다양한 시민들, 해외 청소년들이 모여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워크숍, 체험 부스, 전시, 포럼에 참가했으며 여수국제청소년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댄스음악경연대회도 개최되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특화하여 국제적인 이슈에 접근함과 동시에 이를 주제로 연결시키고, 문화예술 워크숍의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국내 청소년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또한 청소년 기획단, 청소년 축제단의 활동 폭을 넓힘으로써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축제의 성격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 c h a n g e

대규모 모임이 가능한 실내 공간과 무대가 있는 야외 공간이 인접한 곳으로 축제 메인 장소를 고정화할 필요가 있다. 매년 축제 장소가 바뀌다보니 정보 및 안내 인프라를 위해 매년 일회성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에는 오동도국립공원에서 웅천친수공원으로, 다시 웅천친수공원에서 오동도국립공원으로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그간 준비한 내용들을 백지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공간을 파악해 기획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했다. 이런 불필요한 과정에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내실있는 축제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적과 지역을 막론하고 청소년축제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지역 기반의 축제로서 고유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국내 다른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파급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 청소년들의 참가를 유도할 네트워크 보완도 요구된다. 해외 청소년들이 일회성으로 단순히 참가하고 돌아가는 수준을 벗어나려면 축제 전에 공연팀을 만들어 이를 축제에서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수시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중심으로 해외 참가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 축제의 국내외적 발전 전망 및 성격에 맞는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확대해야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여름날 1주일 남짓 진행되고 끝나는 일시적 행사가 아닌 항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 가동되는 축제 사무국도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외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는 축제이다 보니 더 다양한 식사와 먹거리도 준비되었어야 했다. 기획단에서는 참가자들의 종교, 알러지 등 신체적 조건, 계절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메뉴를 준비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역 상가와외의 관계, 난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축제기간 중 참가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 m o r e i n f o

블로그 <http://blog.naver.com/youthyeosu>

필통넷 <http://filltong.net/promotions/youthyeosu>

페이스북 <http://facebook.com/youthyeosu>

청소년허브 <<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 서울-전남 청소년문화교류사업

대상 : 전라남도 지역 청소년 80명 서울지역 청소년(청소년문화교류기획단) 16명

진행 기간 : 2011년 8월 30일~2011년 11월 30일
(본 프로그램 진행 2011년 10월 31일~11월 3일)

장소 : 하자센터 외 서울 전역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서울-지역 청소년문화교류사업은 서울시와 교류 대상인 지역 시·도 교육청에서 협조 선발한 청소년 80명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2011년에는 하자센터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전남지역 사업공모에 지원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맡아 하자센터는 지역 청소년이 서울의 판에 박힌 '명소'를 훑어보고 돌아가는 등 피상적으로 진행되어온 기존 사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래의 눈으로 바라본 새로운 서울을 소개하자'는 목적 아래 서울지역 청소년들을 기획단으로 구성, 본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구조로 기획했다. 지역 대 지역의 청소년들이 만나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서울을 소개하는 주체가 될 청소년 그룹 역시 이번 서울-전남 청소년문화교류사업이 자신의 관심사와 배움을 활용할 계기가 될 수 있는 청소년 집단을 선정해 상호성장의 의미를 더했다. 일반 모집과 기획 과정 속에서 서울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서울관광고등학교가 관심을 보였고,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교내에서 16명의 청소년문화교류기획단(일명 '또래가이드')를 선발해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사업 공모의 예시로 인용된 스포츠 경기 관람, 지하철 탐방, 서울의 주요 시설, 역사, 유적지 견학 및 옛 생활 체험 부분은 이들 또래가이드가 추천하고 직접 돌아본 곳 위주로 선정했으며 이와 함께 하자센터 및 연계 그룹들이 제공하는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에 추가 배치해 단순 투어에 그치지 않고 더 폭넓은 경험을 하도록 했다. 실제 진행 속에도 전체 참여자들을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나눠 개별 일정을 소화하게 함으로써 서울과 지역 청소년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프로그램 구성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4 일 차
07:00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기상
08:00	이동		숙소 퇴실
09:00	(이동 중 점심식사)		조식
10:00	숙소 도착(방 배정)	서울 창의공간 투어	회고하기
11:00	창덕궁/어듬 속의 대화	로드 투어	
12:00	(4개조로 나누어 이동)	동대문/여의도/상암	이동
13:00	오리엔테이션	(4개조로 나누어 이동)	(이동 중
14:00			점심 도시락 제공)
15:00	아이스 브레이킹	친구추천 서울8경 2	휴식
16:00	가이드북 만들기	전쟁기념관 외	
17:00		(8개조로 나누어 이동)	워크숍
18:00	친구추천 서울8경 1	서울의 밤	'과자로 만드는 서울'
19:00	롯데월드	서울N타워	
20:00			Farewell Party
21:00	숙소 도착	숙소 도착	영화 <완득이> 감상
22:00	취침	취침	

<< a c t

‘또래가이드’로 활약한 서울관광고등학교 16명의 청소년들은 본 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할 일을 준비하는 모습은 관심사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들과 함께 총 3회의 기획회의와 투어 지역의 실제 답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 일정표가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3개월간의 기획 및 준비 기간이 지나 나주, 목포, 신안, 영광에서 총 80명의 청소년과 4명의 인솔교사가 서울에 도착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들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서울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가 많았으며(3회 이상 서울체험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80명 중 34명),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창의공간 투어 중 ‘어둠속의 대화’ 프로그램은 놀이동산과 같이 즐기는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대다수(80명 중 58명)의 청소년들이 가장 인상 깊은 프로그램 3개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3일차에 각자 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브로 배치했던 ‘과자로 만드는 서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까지와 다른 몰입도와 상호 어우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전환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차별점이자 결과적으로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역시 청소년문화교류기획단이다. 16명의 자발적 신청자로 이루어진 서울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은 2명씩 8개 조의 조장 역할 및 자신들이 소개하는 서울 프로그램에서 스태프나 인솔자 없이 가이드하는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지역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본 프로그램의 큰 만족도 중 한 부분이 청소년문화교류기획단(또래가이드)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설렘과 아쉬움인 점을 확인하였다.

<< c h a n g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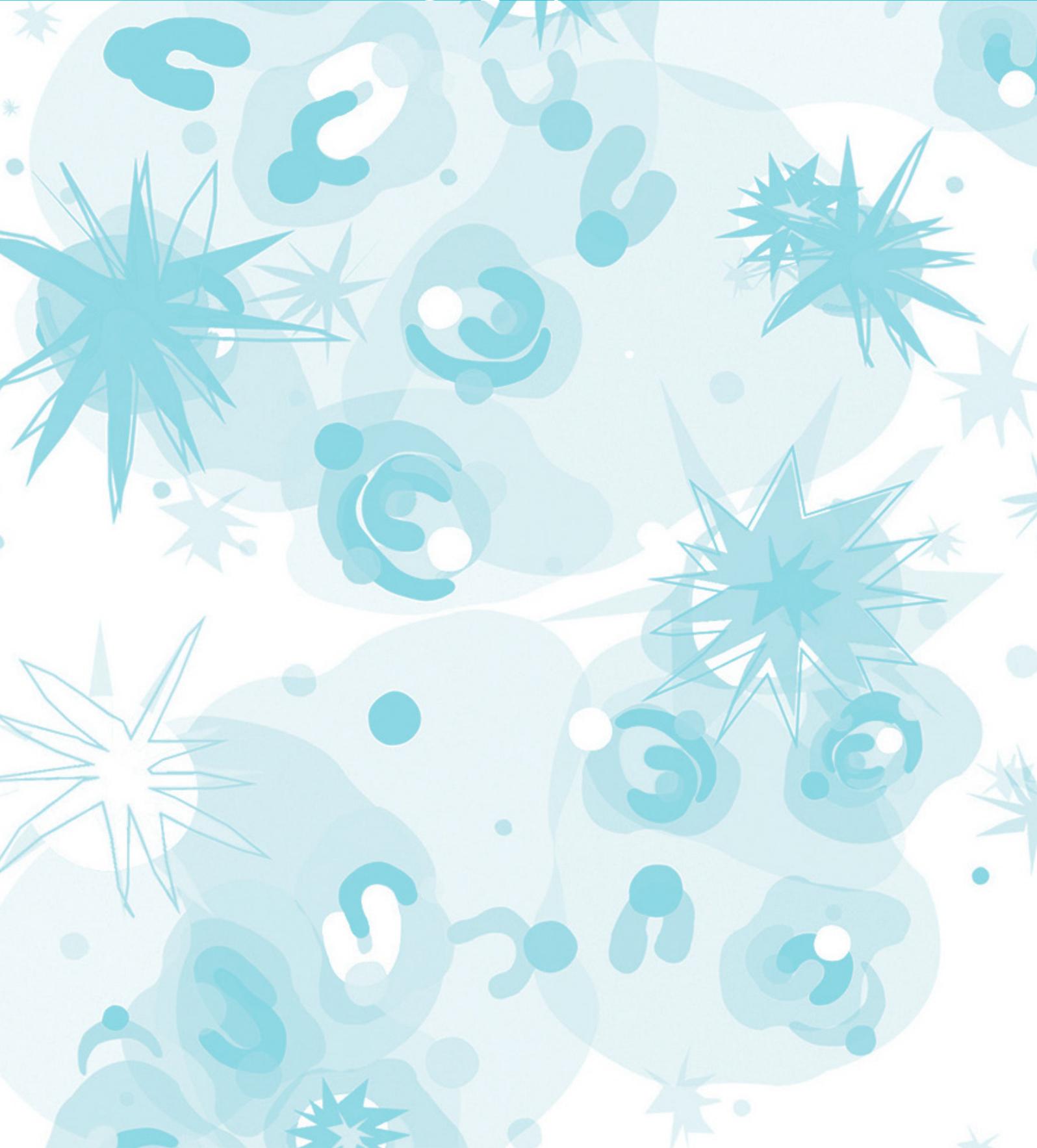
이상 2011 서울-전남 청소년문화교류사업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서울-지역청소년문화교류사업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면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투어 중심 프로그램의 전환 필요하다. 3회 이상 서울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서울의 명소는 전혀 새롭지 않으며, 단순 투어를 통해서 서울을 더 잘 알게 되거나, 서울, 수도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특히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따르지 않는 단순 따라다님에서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둠속의 대화’나 ‘과자로 만드는 서울’과 같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창의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프로그램 전면에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지역 청소년들이 또래가이드에 열광한 부분이다. 이 역시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에서 지역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서울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식의 프로그램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16명 대 80명이라는 숫자상의 불균형에도 16명의 청소년들은 80명과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은 스태프가 아닌 또래의 인솔로 교감을 갖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서먹함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사업에서 지역-서울 청소년간의 교류가 추가 되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성이 있다.



청년 허브



청년허브 << 진로설계 및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체인지카펫

대상 :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보다는 서로를 살리고 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삶의 경험으로 쌓아가고 싶은 18~29세 청년

진행 기간 : 2011년 4월 ~ 2012년 7월

장소 : 하자센터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 i m a g i n e

체인지카펫은 일자리 부족, 등록금 인상, 주거불안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들 스스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일’ 모델로 만들어내는 청년 문화기획과 창업자 양성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 청년들은 자신의 고민 또는 관심과 밀접한 활동현장을 찾고, 각 현장이 처한 재정, 공간, 인력, 프로그램 상황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을 통해 실제적 일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자기고용 가능한 회사를 만들거나 관련 분야 단체(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월에 처음 만난 31명의 청년들이 모여 워크숍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5개의 팀(만행, 존스토리, 코아페, 페스테자, Plan Bee)을 조직하였다. 하자센터 · 사단법인 씨즈의 컨소시엄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공모해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들 5개 팀을 지원했고, 문화기획자로서 다양한 사업에서 창의적 기획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체인지카펫의 운영구조는 5개 팀이 자유롭게 팀을 넘나들며 협력하는 운영구조를 기획하였다. 서로의 연결지점이나 협력 없이 간다는 것은 팀의 생존과도 직결하는 문제였기에 계속 네트워킹하도록 기획하였다. 워크숍과 하자센터 및 외부 사업들과의 연계 지점을 찾고 협력하며 함께 일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 a c t

체인지카펫 5개 팀은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팀별 사업과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공동 사업으로는 영등포달시장에서 워크숍 운영, 먹거리, 온라인 홍보, 기사 취재 등을 하자센터와 협력하여 함께 진행하였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마켓&포럼 2011에서도 온라인 홍보 및 기사 취재를 담당하였다. 이 일들을 통해 일을 익히고 협력하며 배우는 과정을 가졌다. 팀 안에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

이어 각 팀별 사업을 살펴보면 **만행**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대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을 해왔고, 이를 통한 기업광고, 후원단체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하자센터 공간을 활용한 ‘밥터디’, ‘귀이개’ 등 20대들과의 교류 모임을 진행하였고,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집을 발간해내기도 했다.

존스토리는 지역 언론을 기반으로 한 웹 플랫폼 개발을 준비하는 팀이다. 존스토리는 영등포 달시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가, 아티스트, 주민들을 취재하고 온라인 홍보를 담당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데 주력했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마켓&포럼에서도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며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 사용하였다.

코아페는 하자센터 신관 1층 하하허허카페를 지역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드나들며 건강에 좋은 음식과 차를 즐기는 카페 공간으로 세팅했다. 삶디자인 모임, ‘그린 크리스마스 파티’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중간성과 발표회 등 하자센터 내부 행사뿐만 아니라 카페 이심 등 외부에 다과를 납품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직접 만든 쿠키와 빵을 카페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타이 마사지 워크숍, 칼림바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카페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페스테자는 하자작업장학교 졸업생 및 수료생들이 다양한 문화 기획능력을 발휘하면서 음악 공연과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자작업장학교 재학 시절부터 연계를 맺었던 NGO/NPO 등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청소년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년간 교류하고 있는 버마 난민 청소년 등을 위한 학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하자작업장학교에서 공연음악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서도 공연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홍콩 MaD 2011과 2011 서울청소년창의시밋에서도 공연했다.

Plan Bee는 사회적 이슈와 메시지가 담긴 자체적인 영상, 디자인 작업물을 제작하고, 청년 미디어 매체 작업자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청년 미디어 디자인 스튜디오로의 확장을 하고자 했다.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서 청소년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맡았으며 축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聽策) 워크숍 오프닝 영상,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설립 행사 오프닝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 단위와 협력하며 일을 해왔고, 녹색당 탈핵을 위한 311시간 시민행동 영상과 같은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영상도 만들었다.

<< c h a n g e

체인지카펫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팀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각자 변화를 거치면서 앞으로의 길에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만행은 사진집을 출판, 발표회를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해 진행하는 청년 네트워킹 그룹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존스토리는 하자센터에서 준비 중인 지역 대안적 문화장터들을 엮는 네트워킹 사업 중 온라인 파트를 담당해 웹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제작 등을 맡아 협력할 예정이다. 나아가서는 지역의 이야기를 전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코아페는 좋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2011년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천연발효빵 전문 베이커리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천연발효빵을 만드는 장인과 결합해 기술을 전수받고 워크숍을 주최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먹거리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페스테자는 청소년을 비롯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환경, 탈핵 등 당면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 공연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할 예정이다.

Plan Bee는 하자창의허브, 하자센터, 사단법인 씨즈의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 영상 프로덕션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 m o r e i n f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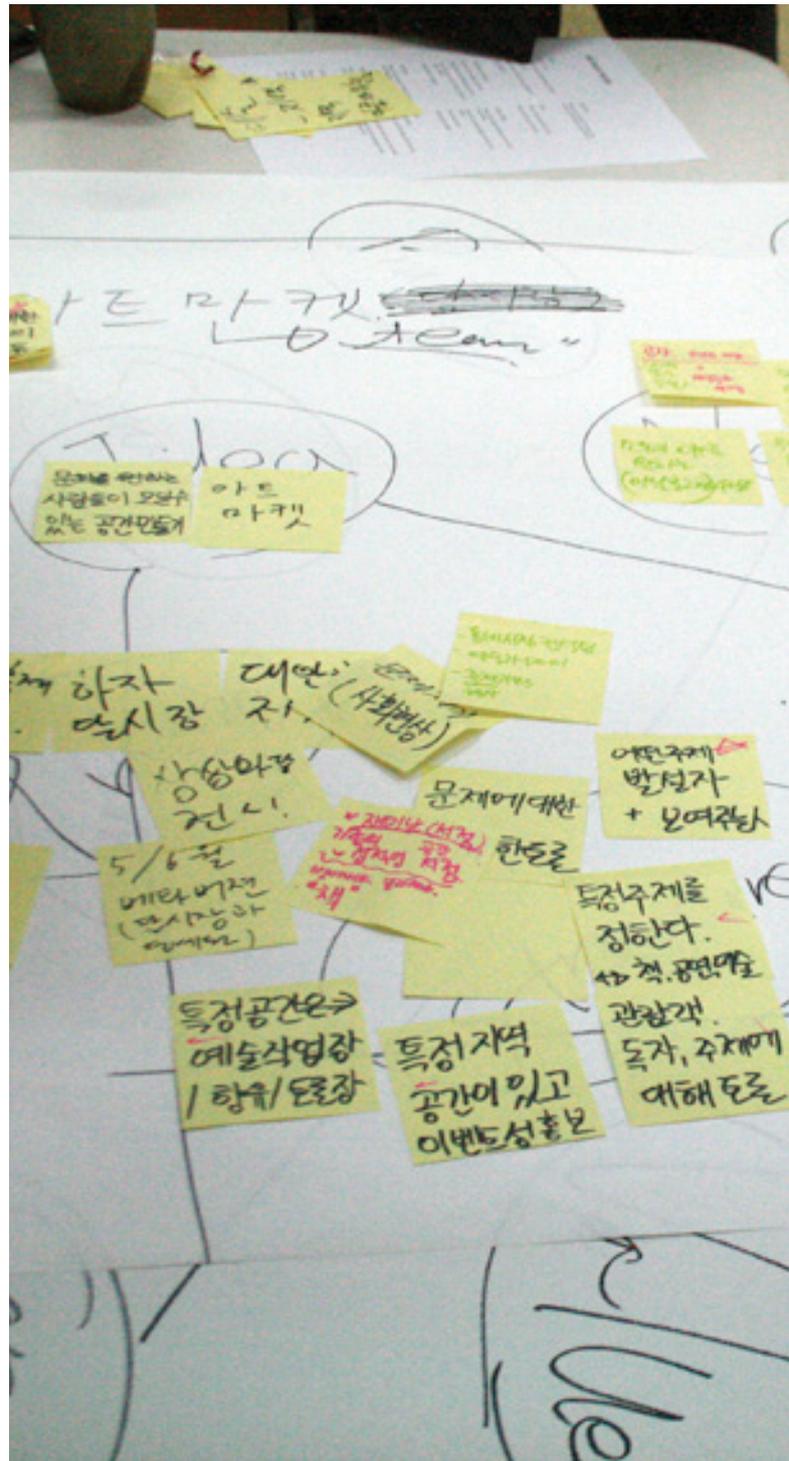
아카이브 하자 <http://archive.haja.net/archives/view/91>

만행 <http://facebook.com/10000hang>

페스테자

<http://www.facebook.com/pages/FESTEZA/280769098603476>

Plan Bee <http://facebook.com/productionplanbee>



청년허브 << 진로설계 및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사회적 장터(영등포 달시장)

대상 : 영등포 주민을 비롯한 청년 아티스트, 문화예술, 환경·생태 분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및 정책 담당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등

진행 기간 : 2011년 5월 1일 ~ 11월 30일

장소 : 하자센터



달시장 마스코트 영달이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영등포 달시장은 영등포구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활로를 지원하기 위한 마을장터로 기획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달이 뜰 즈음 하자센터 앞마당에 지역 주민과 예술가, 사회적기업가들이 함께 모여서 비우고 나누며 만들어가는 ‘달달한 마을시장’이라는 콘셉트로 잡았다. 아트마켓과 문화공연, 베틀시장, 문화예술 워크숍 등 아이와 어른, 예술가와 사회적기업가 등 마을 주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마을 축제, 열린 장터를 상상해보았다. 이때의 ‘마을 주민’이라 하면 영등포를 주소지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곳을 근거지로 해서 장사를 하거나 기업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음악가, 미술가, 놀이 전문가 등 동네의 솜씨 좋은 장인들이 준비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고, 아예 쓰던 책이나 장난감 등을 들고 나와 팔아보고 나누며 경제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은 자신들이 하려는 기획이나 처음 만들어본 작품을 축제 같은 장터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내놓고 피드백을 받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금요일 저녁 마실 나온 가족은 문화예술품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아트마켓의 상품이나 베틀시장의 생활물품들을 구매하기도 하며, 한켠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오가닉마켓에서 주말 식재료를 장만할 수도 있다. 영등포 지역에서 공방이나 자영업을 하는 이들은 솜씨를 뽐내거나 나누는 워크숍을 열 수도 있고 회원모집이나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다. 또 사회적기업가들은 가치투자 설명회나 판매 쇼케이스를 열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구매 담당자,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영등포 달시장은 시장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거래와 문화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세팅되었다.

<< a c t

영등포 달시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통로로 진행되었다. 하자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오프라인 장터는 지역 사회에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6개월간 6회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근 스

태프가 직접 뛰어다니며 섭외했지만, 8월 이후 자발적인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활기찬 지역축제로 발전해갔다. 일례로 5월 첫 달시장에서는 66개의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되었으나 8월에는 104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차츰 달시장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 신청자가 급증했고, 사회적기업 노리단이 ‘아기 달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0여개의 부스를 추가로 운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9월 달시장부터는 세부 프로그램들의 완성도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총 운영 부스를 60~70여개 수준으로 유지해나갔다.

운영 부스의 수는 제한했지만 프로그램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결과 지역 주부들의 수공업 솜씨를 자랑하는 ‘취미공방’이 아트마켓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며, 영등포의 마을기업 뽕사랑과 나눔마을이 참여하였다. 매달 요리 솜씨 좋은 주부들이 먹거리 장터에 참여해 시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도 했다. 10월 14일 열린 마지막 달시장은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과 연계, 하자센터 본관 옥상에 조성된 농원에서 ‘옥상농원 노을파티’라는 커뮤니티 행사까지 진행했다.

온라인 장터는 사회적기업의 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고, 이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위젯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추석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상품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된 카탈로그를 만들어 하자마을 뉴스레터로 발송했고 영등포구청의 내부 인트라 및 SNS를 통해 홍보했다. 온라인 쇼핑 위젯 서비스의 경우는 온라인 쇼핑물 ‘희망수레’와 ‘이로운 물’에 입점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달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를 걸어 홍보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아직은 달시장 홈페이지 유입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오프라인 사업과 콘텐츠가 충분히 쌓이는 2012년에는 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c h a n g e

2012년 영등포 달시장은 크게 세 가지의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하자센터에서 주관했던 체제를 개편, '달시장 청년 기획자'들이 모인 팀이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청년들은 자신의 일거리로 달시장을 기획하며 추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자센터는 이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지원하게 된다.

두 번째로 영등포 달시장 내에서 대안화폐를 실험하고자 한다. 기존의 화폐만 교환되는 장터가 아니라 노동과 재능이 교환되는 대안적인 실험들이 펼쳐지는 장으로 기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달시장은 전국 각지 마을장터들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문화작업자와 사회적기업 지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국의 마을장터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자생력을 갖춘 활동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dalsijang.kr>

블로그 <http://dalsijang.tistory.co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dalsijang>

트위터 <http://twitter.com/dalsijang>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 웨딩업체이자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 관한 기술력을 보유한 친환경 의류 디자인 및 제조업체이다. 사업군은 크게 친환경 웨딩사업과 친환경 리빙사업, 친환경 단체복 유니폼 사업, 환경교육으로 나뉘며 친환경 기업은 물론 동료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에코 웨딩 & 라이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기 2010

- 웨딩드레스, 청첩장 등 시제품 개발
- 토탈 웨딩 서비스 상품군 완성(연계업체 업무협약)
- 친환경 병원복 시제품 개발 및 적용 사례 배출
- 친환경 유니폼 시제품 개발 및 적용 사례 배출
- 친환경 단체복 및 영유아 제품 시제품 개발 및 판매

성장기 2011

- 웨딩드레스 유형별 생산 프로세스 구축
- 친환경 웨딩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정부 및 기관과 에코웨딩 캠페인 시작
- 국내 최초 에코 웨딩북 출판
- 에코웨딩 전용홀 확대
- 친환경 병원복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유니폼 판매 확대

성숙기 2012

- 패션쇼 및 해외 쇼케이스
- 에코웨딩 브랜드 업그레이드
- 그린디자이너 및 컨설턴트 양성
- 에코웨딩 분점 설립
- 대형병원 친환경 병원복 납품
- 친환경 유니폼 사업 전문화 및 분리

<< a c t

Eco Wedding & Living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친환경 웨딩드레스, 청첩장, 웨딩 장식 등의 제품을 통해 과소비와 허례허식 일변도인 기존 웨딩 시장의 대안을 제시한다.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음악, 식장 등 예식문화 전반에 걸친 친환경 결혼 컨설팅을 통해 획일화된 결혼식으로 발생하는 CO2 발생을 절감하는 등 지구온난화시대의 새로운 웨딩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에코 웨딩을 통해 탄생한 커풀들이 지속적인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활제품, 임부복, 신생아 용품 등 에코 리빙 제품을 단계적으로 개발 및 확산하고 있다.

Eco Uniform

친환경 병원복 및 유니폼 개발을 통해 대량으로 제작되는 단체복을 친환경 소재와 방법으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여가고 있다.

Eco Education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친환경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환경 세미나와 강연을 통한 청년층 그린 디자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및 싱글맘, 리틀맘,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친환경 리빙제품 DIY 교육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c h a n g e

Eco Wedding & Living

- 퍼스널 브랜딩 : 약 150여 차례에 걸쳐 친환경 웨딩 드레스와 유니폼 등 '그린 디자인'에 몰두해온 이경재 대표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뤄졌다. 국내 최초로 에코 디자인을 의류에 적용해온 대표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오리지널리티와 정통성을 강조해나가고 있다.

- 에코 & 컬처 마케팅 : 웨딩상품은 복잡한 구매과정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문화적인 맥락까지 제공할 때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착한 소비에 호소하는 한계를 넘어 다양한 전시와 행사 등을 통해 디자인의 우월성과 환경의식의 선도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소비자 마인드를 공략하고 있다.

- 대규모 캠페인 조직 : 동료 사회적기업,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 공공기관, 기업,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에코웨딩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2011년 7월 환경부, 중앙일보 등과 함께 '에코웨딩, 10년의 약속'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 스타 마케팅 : 공공기관 및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함께 진행한 캠페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유명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나가고자 한다. 실제 스타 커플의 결혼식을 친환경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회 영향력 확대 및 친환경 결혼식의 파급 및 확산을 지향하고자 한다.

- 웹 서비스 활용 : 상품 소개가 중심이 되는 기존 웨딩 웹사이트 형태를 지양하고 결혼식 준비부터 SNS 관리, 결혼 이후 녹색 삶 유지까지 가능한 개인화된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출판 : 대표의 석사논문(친환경 웨딩드레스 디자인연구, 2008)을 기반으로 예식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에코

웨딩 워크북을 출판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e-Book이나 웹 기반 전자책으로 제작해 배포, 인터넷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결혼에 대한 대중적인 확산을 시도할 예정이다.

Eco Uniform

- 탄소 마케팅 : 지구온난화 방지와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국으로서 2012년 이후 의무감축 대상국에 속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관공서 및 대기업 등에 친환경 유니폼을 어필하고 있다. 친환경 유니폼 대체 시 CO2 절감량을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등 여론화에 힘쓰고 있다.

- 바이럴 & VIP 마케팅 : 친환경 병원복의 경우 입소문으로 제품 구매가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대지를 위한 바느질의 친환경 병원복을 선택한 병원들 역시 첫 거래 병원의 소개로 연계된 파트너들이다. 유기농 면, 한지 등의 소재에 천연 염색을 거친 친환경 병원복이 기존의 병원복 단가보다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이럴 및 VIP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이다.

Eco Education

- 단체 및 기관 연계 :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하자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도봉숲속마을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홍보와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도 모색할 예정이다.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ecodress.net>

페이스북 <http://facebook.com/ecowedding1>

RE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 i m a g i n e

리블랭크(REBLANK)는 2008년 리사이클링 브랜드 '리블랭크'를 론칭하고 2009년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시작하였으며 1년 후인 2010년 1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다년간 씬 없이 리사이클링 디자인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폐자원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데 노력해 왔다. 무분별한 자원의 소비를 줄여 환경을 위한 방법과 콘텐츠를 디자인 차원에서 개발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조직문화 & 가치

1.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을 보존한다.

- 낭비되는 자원, 특히 가죽과 패브릭 등을 수거하고 공정을 거쳐 소재화
- 이를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제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2. 환경의식 고취와 업사이클링 문화를 확산한다.

- 교육, 워크숍, 전시 등을 통해 업사이클링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 부여
-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콘텐츠 개발 및 진행

3. 의류, 디자인업계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적 자원 고용

<< a c t

2011년에는 리블랭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했다. 즉,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는 디자인이라는 가치 속에서 ‘Long-lasting Design’이라는 재현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이념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하고 오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재활용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에서 친환경 디자인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일회성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친환경 소재인 베지터블 레더를 선택하여 지갑류를 비롯한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Long-lasting Design의 지평을 확대하고 리블랭크만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하였다. 이 중 한 제품은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굿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체성의 연장선상에서 현 세대와 소통하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규모 행사 등에 쓰인 현수막을 수거하는 프로젝트 ‘Trash Attack’은 소재 확보를 겸한 유쾌한 일종의 깜짝 이벤트이며 2차에 걸쳐 진행된 ‘Swishing Night’은 물물교환과 파티의 형식을 빌어 대안적 소비문화의 플랫폼을 생성했던 젊은이들의 자리였다. 이와 함께 업사이클링 디자인 워크숍 등을 통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디자인의 기능과 가능성을 환경적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모든 활동들은 모두 재미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었다.

<< c h a n g e

2012년 리블랭크는 기존 사업의 지향점들을 더 강화하고 지속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재확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주 소재인 가죽과 패브릭의 확보는 여전히 리사이클링 디자인의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소파공장, 피혁 공장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료 조달을 더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트너들에게 기부문화 및 폐자원 활용의 가치를 알리고 감성적으로도 어필함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재료를 수집하고 조달하는데 협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2012년의 중요한 목표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일시적, 단발적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정착시켜 소재 확보의 지속성과 유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재 확보 매커니즘의 구축은 리사이클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reblank.co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reblankreblank>

트위터 http://twitter.com/reblank_

<왼쪽> 리블랭크 스위싱 나잇 / <오른쪽> 리블랭크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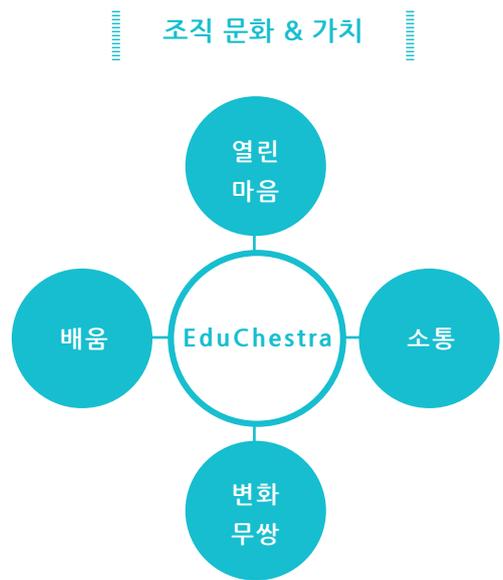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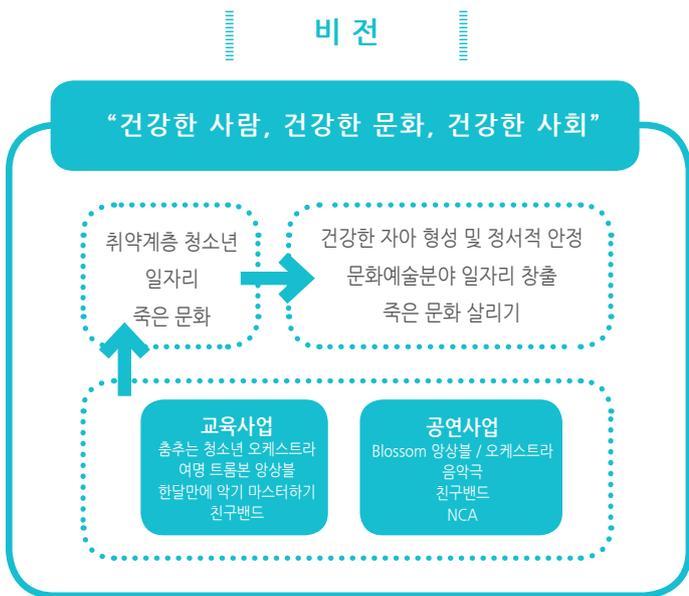
청년허브 << 사회적기업 파트너십 << 에듀케스트라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 i m a g i n e

에듀케스트라(EduChestra)는 ‘내면의 소리를 끌어내는(Educate) 창의적인(Creative) 오케스트라(Orchestra)’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이다. 창의적인 음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으로 자신의 목소리(내면의 소리)를 공연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듀케스트라는 음악 기반 교육사업과 공연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연혁

- 2009년 1월 이사회 조직
 서울시 거리아티스트 정식라이선스 취득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대상 선정
 3월 서울시 '나우스타트' 공익 교육사업 시작
- 2010년 1월 사회적기업 지원 동의
 제1회 한달만에 브라스 마스터하기 개시
 서울문화재단 거리아티스트 인증
 4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 축하공연
 8월 비영리민간단체 승인(서울시)
- 2011년 3월 아마추어퓨전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친구밴드' 개강
 12월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세부 내역>

사회사업

춤추는 청소년 오케스트라(통스타, 꼬꼬브라스)

노원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각각 진행 중이었던 2개의 동아리인 2011년 중·하계지역 연합 브라스 동아리 '꼬꼬 브라스'와 2009년 8월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징검다리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브라스밴드 '통스타'를 하나로 모아 '춤추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기존의 금관악기 교육과 함께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을 부딪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아가서는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습득하기 위해 중요하다.

'춤추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매년 새로운 단원을 모집해 더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동아리로서 지역 사회 축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행사에 참여하여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고, 팀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키워주고자 한다.

여명 트롬본 앙상블

2011년 3월 사회복지공동기금모금회 지원사업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소속 25명의 청소년에게 트롬본 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예술을 접하여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며, 합주를 통해 협동심 및 소통 능력을 발달시켜 이 사회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음악계에서 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NCA(나눔콘서트협회)

NCA(Nanum Concert Association)는 자신의 재능을 의미 있는 곳에 나누고자 하는 음악인들의 모임으로, 에듀케스트라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주팀과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 및 외부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공연나눔'이라는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기타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청소년에게 음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간에 실력을 높여 향후 더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인 단기사업, 탈학교 청소년들의 대안 음악학교, 노인들을 위한 취미생활 프로그램 등 장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사업

한달만에 악기 마스터하기

'한달만에 악기 마스터하기'는 1개월 동안 진행되는 단기집중 악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 3회, 하루 2시간씩 교육한다. 악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악기 다루는 원리를 단순하게 정리하여 가르침으로써 사전 지식이 전혀 없던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실기과정에 도움이 될 음악이론 교육이 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다. 1개월 안에 개인이 비교적 쉬운 독주곡, 합주곡을 각 한 곡씩 연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0년 1월 브라스(금관악기)로 시작하여 현재는 현악기와 국악기까지 교육하고 있다. 연 2회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3기 과정을 마치면서 1, 2, 3기 수료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후속 프로그램인 '친구밴드'를 결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친구밴드

친구밴드는 ‘한달만에 악기 마스터하기’ 1, 2, 3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친목활동과 악기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2월 9명의 회원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 5회 연주회 및 연 1회 캠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 1회 교육 및 연습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는 회원들이 문화예술계에서 전문 강사로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아마추어 퓨전 오케스트라를 결성해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 사업

양상블/오케스트라

아마추어와 전문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사업으로서 에듀케스트라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동시에 고유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상블, 오케스트라, 음악극 등으로 진행된다. 공연 사업은 ‘Blosso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공연팀이 맡고 있다. 양상블은 금관악기와 국악기를 접목시켜 연주를 하고 있는데, 향후 악기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해 오케스트라 혹은 양상블로 연주할 계획이다.



음악극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놀이터에서 만난 금관악기’가 있다. 두 남녀 꼬마아이가 금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음악에 더 흥미를 느끼는 과정을 담았다. 일반 공연들과 달리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음악과 금관악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공자가 직접 이야기를 창작했으며 참여자들은 실제 악기 체험을 하면서 직접적인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다. 금관악기 외의 다른 악기로도 대체 진행이 가능하다. 음악극 사업은 현재 음악사를 소재로 한 신작도 구상 중이다.



<<more info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brasstongedu>

한달만에 악기 마스터하기 <http://cafe.naver.com/1monthbrass>

페이스북 <http://facebook.com/educhestra>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주)영화제작소 눈은 2008년부터 하자센터에서 인큐베이팅되어 2010년 노동부로부터 인증된 사회적기업이다. 문화예술인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적 의미를 창출하고, 건전한 영상문화 저변 확장과 공정한 제작 환경을 만들고자 결성되었다.

조직문화 & 가치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영화, 영상 제작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창의성과 전문성에 둔 영화, 영상 제작 교육 지향
- 영화 영상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

연혁

- 2009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팀 조직
- 2010 주식회사 설립, 고용노동부 제 70호 사회적기업 인증 (영화사 최초)
- 2011 TV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각종 홍보 영상물 제작, 영화영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2012 기존 사업영역 외 자체 영화제작 및 배급,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모델 개발

<< a c t

(주)영화제작소 눈은 국내 최초의 사회적기업 영화사로서 영화, 영상으로 공공적 의미를 생산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과 단체의 홍보영상 제작 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가치 확대에 중심을 두고 영화 영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반 사업이다. 이는 (주)영화제작소 눈의 자체 영화제작의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맞게 제작 방식과 그 내용에 차별성을 두고 제작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EBS를 통해 방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주)영화제작소 눈은 2009년부터 3년간 꾸준히 소외계층 및 청소년 대상 영화제작 교육과 창의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영화인문학 강좌를 기획, 개설하여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자체 영상제작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눈뜨자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의 형태에서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 또한 ‘다음’ 사회공헌부서와 함께 한 창의워크숍은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협업 사례가 되었다. 이밖에도 서울영상위원회와 동반 기획한 <영화가 사랑한 서울 촬영지 100선>을 출판하는 등 2011년은 (주)영화제작소 눈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역동적으로 진행하며 자체적 능력을 시험해 본 한 해가 되었다.

세부 사업 내역

기업, 단체, 프로모션 등의 홍보 영상

(사)한국식품공업협회 교육영상 및 홍보영상,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워크숍 홍보영상,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교육 영상, SK행복나눔재단 ‘O! SESANG’ 트레일러,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트레일러, 한겨레신문 인터넷방송 ‘하니TV’ 프로그램 촬영 외 다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DVD 제작

<내 친구 외갓집은 산호세>(2012 EBS 방영), <아프리카여행학교>(2010 EBS 방영), <사라지다,머무르다, 나타나다>(부천문화재단 3부작 다큐멘터리), <바위가 기억하는 삶과

역사>(아시아 지역 암각화의 문화적 가치 연구와 콘텐츠 자원화 사업 선정 애니메이션), <동양별자리-호시이야기>(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문화지원사업 애니메이션) 외 다수

영화, 영상 제작 교육

저소득층, 소외계층 제공 영상교육 프로그램 ‘눈뜨자학교’,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창의워크숍 ‘스마트폰으로 영화하기’, 청소년 영화인문학강좌 ‘性스러운 영화읽기’ 등 다수 진행

부가사업

<영화가 사랑한 서울 촬영지 100선> 출판, 옴니버스 영화 <오늘 뭐해?> 배급 중

<< c h a n g e

2012년은 (주)영화제작소 눈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영화 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신진작가를 등용하여 신인 영화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동안 쌓아온 인프라를 통해 독립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 중이다.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 일자리 지원 종료를 대비하여 재정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며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역토착형 영상사업의 실례를 만들고자 한다.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nu-n.co.kr>

트위터 http://twitter.com/FilmFactory_Nun

페이스북 <http://durl.me/2y82ha>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공간정보고교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2007년부터 하자센터에서 인큐베이팅되어 2008년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다. 청소년과 여성이 주축이 되어 배움과 자립의 공동체회사를 목표로 하여, 하자센터와 고용노동부 등의 사회적 자원을 거름삼아 달려 온 지 5년이 되었다. 만 5년이 된 지금, 회사를 지속해야 할 이유와 비전이 커뮤니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제 '요리' '사람' '문화'가 있는 건강하고 정직한 공동체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창업의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조직문화와 가치

‘사람을 성장시킨다’ : 자원이 없는 사람들(청소년, 이주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요리를 통해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 로컬푸드, 직거래, 얼굴 아는 거래를 실천한다.

‘식문화를 바꾼다’ : 음식으로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관계를 회복한다.

‘환경을 생각한다’ :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연혁

- 2007년 ‘일과 요리 청소년 창업팀’을 시작으로 하자센터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시작
- 2008년 오가니제이션 요리 설립 및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
- 2009년 다문화어린이방 ‘하마방’ 오픈, 홍대 앞 다문화레스토랑 ‘오요리’ 오픈
- 2010년 취약계층 청소년 요리교육 사업 ‘영셰프’ 시작
- 2011년 홍대 앞 커뮤니티 카페 ‘슬로비’ 오픈

<< a c t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2011년은 11월 노동부 일자리 지원 종료로 대비하여 '재정 자립'과 '조직문화와 가치'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으로는 첫째, 커뮤니티 카페 '슬로비'를 오픈하여 조직 비전과 가치를 성숙시켜 나가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둘째, 외식업체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외식 영역의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 기반의 외식창업 컨설팅과 브랜딩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재정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향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돕고자 2009년부터 시작한 다문화어린이방 '하마방'은 3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하자센터에서의 1막을 내렸으며 이제 더 많은 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의 2막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 사업 내역

외식사업

다문화레스토랑 '오요리', 커뮤니티 카페 '슬로비', 케이터링 서비스, 급식, 카페 창업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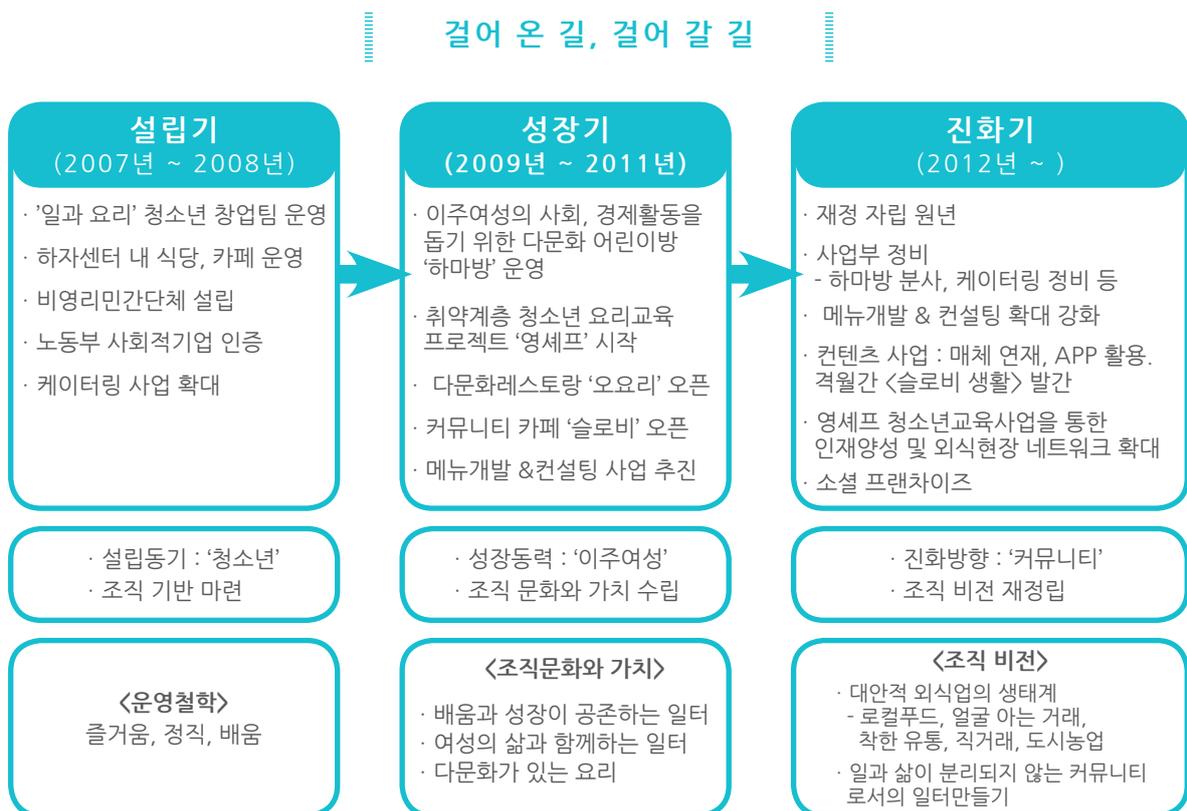
취약계층 청소년 요리교육 사업 '영셰프' 프로젝트, 다문화어린이방 '하마방', 식문화 교육 및 워크숍

외식 컨설팅 및 브랜딩

지역 외식 비즈니스 메뉴 개발, 교육, 컨설팅 및 지역 특산품 브랜딩

<< c h a n g e

2012년 오가니제이션 요리가 지향하는 사업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하자면, 첫째, 영셰프 프로젝트를 통해 일학습의 과정을 정착시키는 일이고, 둘째,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의 회복을 지향하는 건강한 외식업장들, 즉 카페 슬로비를 비롯한 대안적인 외식업장들이 협력하여 외식업계의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어 내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큰 축들이 만나 '요리' '사람' '문화'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순환되는 관계망이 되도록 하는 것이 2012년의 목표다. 이는 외식업에 있어서 '가치 공유 소셜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사업의 형태로 구체화될 계획이다.



<<more info

홈페이지 <http://orgyori.com>

다문화 레스토랑 '오요리'
<http://facebook.com/oyori>
http://blog.naver.com/org_yori

커뮤니티 카페 '슬로비'
<http://facebook.com/slobbie8>
<http://blog.naver.com/slobbie8>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 '영셰프'
<http://facebook.com/youngchef8>
<http://blog.naver.com/youngchef>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 i m a g i n e

유유자적살롱은 음악하는 청년들이 모여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먹고사는 방법을 찾는 커뮤니티이자 회사이며,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다. 삶의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음악이 가진 힘과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연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a c t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학교를 그만두고 할 일도 소속도 없이 무중력상태로 지내는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다시금 삶의 의지와 목표를 찾는 프로그램. 매년 7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중 상당수가 무중력 상황의 문제를 겪는다. 이들 청소년들이 무중력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학교, 마을 같은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오는 관계와 존재감의 결핍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학습과 경쟁만 배워온 청소년들은 스스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힘이 부족하다.

음악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경쟁지수 0인 놀이'이다.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에서 무중력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악기를 배우고 연주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서 지내는 경험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되찾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무중력 상황을 벗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는 기초반 3개월, 심화반 3개월로 이루어져 있다. 1기수당 10명 내로 진행되며 기초반 수료 뒤 지원자에 한해 심화반을 진행한다. 월, 수, 금 주 3회 과정이며 악기를 배우는 것과 단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기초반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달에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공간과 사람에 익숙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찾게 된다. 두 번째 달에는 친구들과 함께 연주를 시작하는 단계로 같이 연습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작은 공연에 도전한다. 세 번

째 달은 합주에 몰입해 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단계이다.

심화반은 기초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중심을 형성하며, 새로 들어온 기초반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초반과 함께 공연하는 것은 물론 하자 내외부의 여러 행사나 공연에 참여하면서 좀더 주도적으로 협력과 공동체의 경험을 쌓는 것이 목적이다. 음악적으로도 연주, 음악 이론 등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2011년 현황

- 2기 6명

기초반 : 3월~5월, 심화반 : 7월~9월 진행

- 3기 7명

기초반 : 7월~9월, 심화반 : 11월~1월 진행

- 4기 6명

기초반 : 11월~1월, 심화반(2012년 예정)

유자사운드

유자살롱의 밴드 프로젝트인 유자사운드는 유자살롱의 음악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하자센터 내외부의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이 필요할 경우 유자살롱의 직원들은 유자사운드로 변신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한다. 음악으로 세상으로 이롭게 하고자 하는 유자살롱의 바람을 전하는 것이다.

주요 공연 및 행사

- 희망제작소 사회적기업 한일 포럼 (2월)
- SK 사회적기업지원단 행사 (2월)
- 제주피스보트 & 제주중문해변축제 (7월)
- 샘표공장 65주년 기념행사 (8월)
- 영등포 달시장 (8, 10월)
- 녹색광선 커뮤니티 마켓행사 (10월)
- 전남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11월)
- 열매나눔재단 지구자립의 날 공동기획 및 진행 (11월)
- 직딩예술대학(직딩예대)

삶에서 곤란함을 느끼는 것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생존경쟁에 들어선 어른들도 먹고 살기 위한 끝없는 경쟁과 소모 속에서 힘들어한다. 유자살롱은 이런 이들을 위해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의 직장인 버전인 ‘직딩예술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동료로 만나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 가는 기쁨을 전하고자 한다.

유자푸딩

유자살롱이 가진 음악과 디자인 역량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유자살롱이 추천하는 음악들 그리고 고유의 콘셉트가 담긴 각종 디자인 작업을 통해 유자살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c h a n g e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의 경우 2010년 1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무중력 청소년들을 만났다. 기초반과 심화반을 마친 후 다시 입시 준비를 시작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과 유자살롱 같은 공동체를 필요로 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연습공간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초반과 심화반 수료 후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거쳐갔다면 앞으로는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일을 도우며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관계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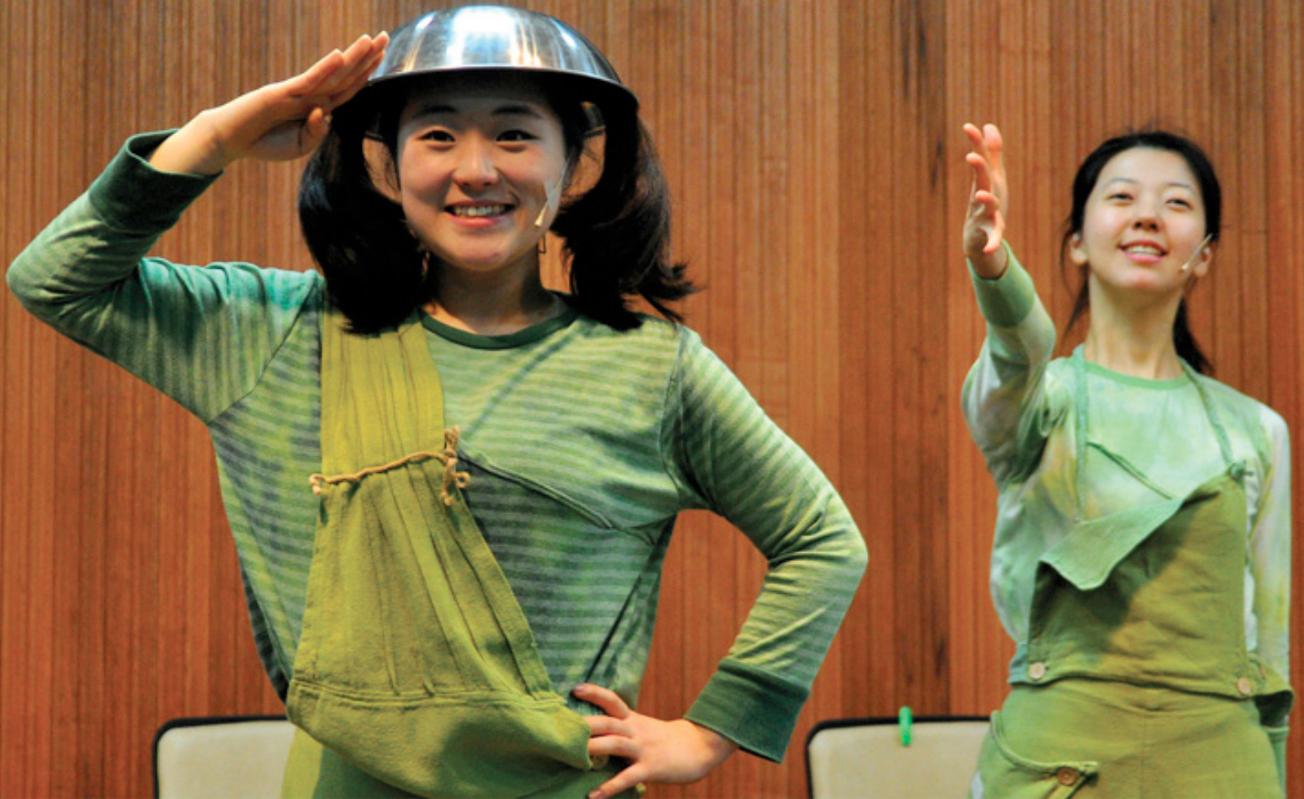
또한 2011년까지 무중력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2012년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매뉴얼로 만들고 보급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외부에서 프로그램 노하우 전수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는 전국 수많은 무중력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각 지역별로 프로그램 운영 거점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매뉴얼 제작에 힘쓸 예정이다.

또 하나의 도전은 대상층의 확장이다.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의 경우 2011년 후반으로 갈수록 주 대상층이 아닌 20대의 상담 비율이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대학생을 비롯 20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직딩예대, 유자푸딩 같은 사업들이 이런 고민의 결과였다. 2012년에도 대상을 확장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yoojasalon.net>

페이스북 <http://facebook.com/yoojasalon>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이야기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하자센터의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2009년에 만났다. 2010년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었고,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에 화답하는 해법을 예술로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고자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온 과제는 ‘책 있는 사회’이다. 이야기꾼의 예술은 마음 깊이 움직이는 책 읽기를 돕는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수준 높은 예술, 책 읽기를 잘 권하는 연극은 도서관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변화될 필요와 가능성을 제안해 준다.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여전한 문화 불균형과 격차에 찾아가는 공연과 교육으로 답한다. 찾아가는 것의 형식과 내용을 탐구하며, 찾아가더라도 그 질적 수준이 높은 예술이 그 대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작업자의 눈과 마음으로 꾸준히 문제를 발견하고 재정의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시대에 대한 예감은 숲과 생태적 감수성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태어나고, 아기의 문화권 · 예술적 접근 차단에 관한 질문은 새로운 시민권에 대한 상상과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린이와 동심을 가진 어른을 잇는 예술은 어린이를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작업자가 작업자를 둘러싼 사회와 이웃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회는 아름다움의 생산에 대한 댓가와 예술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표명할 것인지, 사회의 수준을 계속해서 넘어나갈 것이다. 취약계층 예술가의 생존을 넘어 사회가 예술가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사회적기업으로 뛰어가고 있는 중이다.

연혁

- 2009 이야기꾼의 책공연 창립
- 2009 책공연 2작품, 지식공연 2작품,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는 포럼연극 1작품 창작
- 2010 융합창작공연 선정작인 인터랙티브 동화극 이야기꾼의 디지털양탄자 시리즈 첫 번째 <궁금했을 뿐인데> 창작 공연
- 2010 자주관리경영 공동체주식회사 전환 및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 2011 창립 후 3년간 공연 250회, 교육 450회
- 2011 책공연 대표 작품 6개 레퍼토리화.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교육 시나리오 총 50개 창작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는 포럼연극 5개 작품 창작

<< a c t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발견한 사회적 과제를 세세한 질문으로 구체화하고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꾼의 예술로 구한다. <책 있는 사회>는 세상에 내놓고 싶은 질문들과 또 만나 <날말공장나라> 등의 책공연으로 태어났다. 돈을 주고 낱말을 사야만 말을 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찾아가는 예술의 형식과 내용 탐구는 지브리쉬·마임·큐브오브제·와이어모빌오브제와 움직임, 새로운 음악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구석구석속닥속닥 프로젝트>는 찾아가는 예술이 많아졌다고 하는 2011년에 왜 아직도 예술을 접할 수 없는 일이 많을까?에 대해 이야기꾼이 던지는 질문이다. 10명 내외의 어린이들이 있는 부락들은 찾아보려 하지 않을 뿐이지 전국에 넘친다. 커뮤니티 아트, 새장르공공예술 등 새로운 예술에 대한 필요 맥락과 제안은 유효하지만 구태의연하게 들리는 정책적 언어인 찾아가는 예술은 여전히 드물고 새로운 일이다. 어떤 지원도 없이 덜컥 시작한 <구석구석속닥속닥 프로젝트>는 10명 내외의 어린이를 찾아가는 예술의 이유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인 진로와 예술은 사회적 창 의와 토론이 시작되는 연극인 포럼연극의 신작과 진로이야기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게 된 질문이었다. 격심한 압력을 받아 튕겨내고 튕겨져 나가는 청소년들로부터 오는 이상 징후 신호를 감지한 이야기꾼은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의 총감독과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다. 미취학 아동이 유아를 함께 돌보며 성장하는 프로그램은 3년간 함께 했던 하마방에서 진행되었고 아기연극으로 이어졌다. 만 3세 이하의 아기가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드는 일은 아기에 대한 정서와 실증의 연구이기도 하며 아기의 문화권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전래담과 전래신화, 전설의 책은 문화적 다양성이 절실한 시대에 오히려 표준화, 압축화, 제품화되어 가는 문화에 대한 다음 대답이었으나 <백일홍 이야기> <어처구니 이야기>는 탐색 진화 중에 있다.

매서운 겨울이 올 때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농사처럼 작품을 준비한다. 때로는 봄 씨 뿌릴 때 맞춰 창작이 완료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해 만에 맺는 과실처럼 진행형인 작품들도 있다. 2011년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해였다.

2011년에도 아기가 왔다. 2명의 아기는 돌이 지나 이야기꾼에 나타났고 1명의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타났다.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걸맞은 수준 높은 답을 예술로 내는 곳에서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예술에서 성취를 꽃피워내는 조직은 이야기꾼의 책공연의 지향점 중 하나이다. 시민과 전문가, 전문가가 더 수준 높은 예술품을 함께 만들어 내는

안목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예술로 함께 육아하는 곳, 부를 만들어내는 의식주와 화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담은 예술품에 투여된 노동에 적어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회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 때 어린이 청소년 예술은 질적 도약과 함께 사회 속에서 자립할 것이며 이웃의 대소사에 깊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될 행동이다.

<< c h a n g e

2012년의 변화는 날씨와 같고 노력은 짓는 일과 같다. 해마다 똑같이 오는 것이 사계절이라 여겨지겠지만, 농사를 짓고 옷을 짓고 집을 짓게 될 것이겠지만, 짓는 일은 해마다 다르다. 책을 잘 권하는 이야기꾼, 어디든 무대를 펼치는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 움직임과 장면을 훈련하고 아주 작은 차이에도, 그 차이를 만들고 다듬기 위해서 연습하고 상상하고 시도해 보게 될 것이다. 관객이 상상하고 싶어지는 연극과 이야기 예술은 그 자체로 주도적이며 창의로운 참여로 이어진다. 매일 똑같이 보던 주택, 그 주택의 공부방도 이야기꾼에 의해, 상상하고 싶어 하는 관객에 의해, 달을 청소하러 떠나기로 결심한 토끼들의 마을도 되고 손 없는 날을 향해 절박한 모험을 떠났던 세상의 끝도 된다. 바다도 동굴도 우주도 생생하게 펼쳐진다.

2012년 이야기꾼은 5작품에 도전하고 있으며 2인극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다수의 책을 찾아 생각과 상상, 호기심과 질문을 틔우는 발문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연극적 세계에서 뛰어놀고 사고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교육 시나리오들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탐구가 확대될 것이다. 사회적 과제에 맞대응하려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록 들어가는 비용 대비 단기적인 수익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며 불가마 속에서 잘 빚어낸 향아리 하나를 건지는 것처럼 이야기꾼이 도전하려는 영역은 다른 이들이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만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새삼 느끼며 2012년을 달리고 있다. 이야기꾼의 책 공연의 작품과 교육내용에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할 때마다 조언을 부탁하는 것도, 발견할 때마다 지지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각, 말, 제도, 건물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예술노동과 사회적 창 의는 혁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bookteller.net>

페이스북 <http://facebook.com/BooktellersQuilt>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 i m a g i n e >>

트래블러스맵은 여행부문 1호 사회적기업으로 공정여행, 지속가능한 여행을 만드는 전문여행사이다. 한국 관광산업의 저가 패키지 상품 홀세일 유통구조를 다품종 소량생산 소비자 직거래로 전환하여 여행의 사회적 가치 생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우며 지난 50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폐해가 있어왔다. 관광지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행자의 관광비용은 다국적 체인과 대형 자본에게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며, 관광지의 현지민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수용 범위를 넘어선 관광객들의 방문은 환경을 극심하게 훼손해왔고, 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오염을 야기했다.

이에 책임여행, 지속가능한 여행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행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공정여행’으로 소개된 이의 원리는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틀거리를 짜는 일이었다. 지역 기반의 경제주체와 협업하여 비용이 지역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행 방법을 창안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창출하는 것,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지역민의 인권을 지키며 다양한 문화가 지구촌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행자들은 이를 통해 윤리적 삶의 가치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연혁

- 2009년 9월 주식회사 트래블러스맵 설립
- 2010년 1월 노동부 여행부문 1호 사회적기업 인증
 - 5월 (사)지속가능한관광사회적기업네트워크 공동설립
 - 10월 환경부 생태관광사업 자문 위촉
- 2011년 4월 NHN 창업자OB그룹 (유)소셜벤처파트너스코리아 투자유치 및 경영자문 협약
 - 5월 소그룹 에코수학여행 론칭

- 7월 제주피스보트 론칭
- 8월 TIES(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회원사 가입
- 12월 모태펀드 미래에셋사회적기업투자조합 1호 투자 유치
- 12월 SROI 측정(사회경제적 가치/투자 대비 사회경제적 수익률)=521.4%
- 2012년 3월 사회적기업 최초 경영공시 시범실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3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 위촉
- 4월 윤리경영대상(한국윤리경영학회) 사회적기업 부문 최초 수상

미션

Benefit Local! Protect Nature! Respect People!

지역에는 최선의 기여를, 자연에는 최소의 영향을, 여행자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비전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시장의 선도적 기업, 2020년 한국 지속가능한 관광 시장 규모를 전체 해외여행객 대비 5%(상품구매자 약 50만 명 해당)로 확대, 이 중 트래블러스맵 점유율 20%(10만 명) 목표

<< a c t

2009년 9월 주식회사 설립 이후 3년간 엄밀한 상품개발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외 100여 개 여행상품 개발, 지역민 1,000여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환원,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그룹 여행 진행 및 피드백을 통해 꾸준히 여행의 질과 신뢰성을 높여왔다. 2011년 사회적기업 최초 공개 투자유치 당시 과반 이상의 주주가 기존 고객이었던 것은 상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고 있다. 또 2011년 4월 NHN 창업자 OB그룹 (유)소셜벤처파트너스 코리아와 같은해 12월 미래에셋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의 1호 투자를 각각 유치, 사회적/윤리적 가치와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SROI 투자 대비 사회경제적 수익률) 측정사업에 의하면 트래블러스맵의 사회적 가치는 521.4%(7억 2천만 원, 2010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트래블러스맵의 상품은 90% 이상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소개되는 여행상품들로, 다양한 사진자료, 풍부한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공정여행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 특히 설립 초기부터 운영하였던 청소년 대상 여행학교 ‘로드스콜라’는 자체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래블러스맵의 공정여행 청소년 교육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의 교육여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c h a n g e

- 성장기 진입 사회적기업으로서 B2B, G2B 부문의 사업 다각화로 2013년 노동부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안정성 확보 주력
- 이주민 노동자 귀환사업 본격화
이주민 노동자의 국내 공정여행 교육 및 자국 복귀 후 여행사 창업 인큐베이팅
-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 아시아 등 공정여행 네트워크 구축
한국어가 용이하고 소규모 개별맞춤 가능한 현지 랜드사 설립 지원, 네트워크 확보
-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지역별 공정여행 문화 확산
스마트폰용 공정여행 가이드 앱 무료 배포 및 중소상인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판매채널 제공
-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국내여행사업(인바운드 공정여행)
지역 소득 창출, 한류스타/저가패키지/쇼핑 중심 한국관광의 새로운 선택지 제시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travelersmap.co.kr>

페이스북 <http://facebook.com/travelersmap>

트위터 http://twitter.com/Travelers_MAP

청년허브 <<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마켓 & 포럼(CASE FM) 2011

대상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및 단체, 사회적가치 투자자 및 소비자, 지원 기관 관계자, 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진행 기간 : 2011년 11월 25일

장소 : 하자센터

주최 : 서울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하자센터



네트워킹 파티 및 시상식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 i m a g i n e

하자센터가 서울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을 알리고, 파트너를 찾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플랫폼이자 공론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사회적 가치 확산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 작업자와 사회적기업가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 정책 담당자 및 연구자, 지원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인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세팅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투자의 방향을 모색하며 투자자, 소비자, 협력자 등 파트너와 연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 및 이를 준비하는 문화예술단체 총 42팀이 참여한 쇼케이스, 공연, 프리젠테이션, 부스 전시, 워크숍, 작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 a c t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마켓&포럼은 네트워킹 포럼, CASE 모의투자마켓, 네트워킹 파티 ‘한 달 빠른 크리스마스 파티’, 지원정보 서비스 등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킹 포럼은 ‘문화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단체들이 제기한 정책 분야의 개선 의견을 수렴해 이후 지원 기관과 정부에 전달했다.

CASE 모의투자마켓은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투자 쿠폰을 발행해 진행하였고, 기관 투자자(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등), 전문 투자자(심사위원)를 초대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했다. 사전에 열린 투자설명회에서는 사전 공모 및 기관 추천으로 선정된 총 42개 참가팀이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공연, 시연, 설명회와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투자는 당일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결과에 따른 우수 사례 시상식 참가 단체 간 네트워킹 파티인 ‘한 달 빠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퀴즈와 각종 공연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원정보 서비스에서는 주최 기관 및 협력기관들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였고, 기관별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이를 통해 배출된 우수 창업팀들을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컨설팅을 제공했고 사회적기업 및 예술경영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 c h a n g e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마켓&포럼은 하루 동안 열리는 이벤트성 행사였지만 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투자의 방향을 모색하며 파트너를 맺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계속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가 주최되어 사회적기업과 인증을 시도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신의 사업을 평가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m o r e i n f o

홈페이지 <http://caseFM.kr>



청년허브 <<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聽策) 워크숍 - 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

대상 : 청년 및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진행 기간 : 2011년 12월 6일
 장소 : 하자센터



2011 하자센터 청년허브

<< i m a g i n e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를 모토로 하는 서울시 청책 워크숍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청년, 하면 실업과 함께 ‘청년실업’으로 세트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해결의 주체로 발상을 전환, 현실을 대표하는 열 명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과 현장에 있는 청년들, 또 SNS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두 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으로 콘셉트를 잡았다.

행사 로고는 박원순 시장의 책 <세상을 바꾸는 100개의 직업>을 형상화한 ‘가능성의 행성.’ 비주얼 작업을 맡은 디자이너 남이는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득한 행성”이라고 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라는 노래 가사처럼 ‘청춘’이라는 말은 어느 시대에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절이고, 청년은 가능성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지금, 3포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가상의 행성을 만들어 그런 청춘을 꿈꾸어야 한다.

행사의 부제 ‘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는 청춘의 가능성이 꽃필 수 있는 사회적 터전에 대한 바람과 의지를 담았다. 창업과 취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청년들의 문제를 민-관이 어우러지고, 세대가 어우러져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자는 자리. 서울시가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 청년이 ‘가능성과 변화의 주체’라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히 ‘세상을 바꾸는 서울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담고자 했다.

<< a c t

오프닝

워크숍은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바람을 담은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현장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아이디어를 보태고자 온 200여명의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행사는 TBS와 서울시 인터넷 TV로 생중계 되었고, 행사 5일 전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필통 등을 통해 ‘청년 걱정일기’라

는 제목으로 의견을 모았다.

1부 - 청년이 말한다

아리(취업준비생)

기업은 ‘갑’ 구직자는 ‘을’이라는 취업시장의 현실을 담담하지만 신랄하게 전한 아리. 경쟁이 치열한 것보다도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취직은 로또다!’라고 표현했다. “일자리는 없고 뽑히고 싶은 사람만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몇 가지 주관적인 기준들이나, 혹은 ‘운’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꿈꾸는 구직활동이란, 적어도 내가 왜 뽑혔는지, 이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들, 공정한 기준이 있어서 상식이 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쓰(청소년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청년 정책이라고 하나 대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을 꼬집은 어쓰.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투명인간’이 되고, 비빌 언덕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루트를 따라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의 20대 정책과 취업 정책은 대부분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어서 저처럼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디도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이학중 (모티브하우스 대표)

사회적기업가 이학중은 자신의 고시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그는 고시촌의 실태와 그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청춘들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조성주(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윗세대가 흔히 상상하는 딱진 머리에 파란색 튜리닝을 입은 ‘청년백수’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로 시작해 청년 구직자의 실제 상황과 청년 실업 현황을 이야기 했다. 또한 반복 실업,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 등 청년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창업/취업을 권장하는 ‘청년실업’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청년 노동권’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접근 할 것을 호소했다.

“저희 조합원이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일했습니다. 4대 보험을 다 떼고 나니까 받는 돈이 8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실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타러 갔습니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자기가 일할 때 받는 돈이랑 똑같았습니다.”

김기남(세종아트 대표)

김기남 대표는 청년창업에 창의적인 힘을 불어넣고 대학생들이 다양한 잠재력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대학과 창업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한동헌(마이크임팩트 대표)

한동헌 대표는 훌륭한 경영자들과 선배들이 멘토링해 줄 수 있는 고품질의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한국 사회가 ‘페이스북’과 같은 청년 창업 성공 사례를 꿈꾼다면 다각도의 세심한 창업 지원이 없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염현철(매니허브 대표)

염현철 대표 역시 스티브 잡스에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25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한 마이크 마쿨라가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탄생할 수 없었다며,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한 환경 조성 과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충한(유자살롱 대표)

청년과 문화산업에 대해 이야기한 전문 음악인이자 사회적 기업 유자살롱 대표 이충한은, 문화 산업의 구조와 현실 속에서 청년의 상황을 이야기 했다. 그는 일자리가 아닌 ‘놀자리’가 많아야 한다고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고,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생태계를 제시했다.

조혜민(노리단 디자인팀)

사회적기업 노리단에 들어와 사회와 디자인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는 조혜민은 사회적인 시야를 가질 수 없는 예술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김민경(대안교육센터 간사)

제3섹터에서 일하는 청년의 고단한 현실로 이야기를 시작한 김민경은 사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호소했다.

2부 - 청년과 말한다

하승창 더 체인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한혜정 교수, 중앙대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한겨레신문> 권복기 디지털 콘텐츠 국장, 하승수 변호사,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주용태 과장, 열린사이버대학 창업학과 황윤정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 후 객석, 청년, 패널 및 즉석에서 수집된 엽서, 행사 5일전부터 SNS를 통해 모은 ‘청년 걱정일기’의 질문, 의견들을 포함한 난장토론이 펼쳐졌다. 청년들의 애환과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박원순 시장은 뼈곡이 메모한 수첩을 들고 나와 “과장님 바로 회의합시다”라고 마무리했다.

<< c h a n g e

청책토론회를 진행하며 만난 청년 당사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년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모임을 2012년 초부터 기획, 진행 중이다. ‘청년 난감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3월과 4월에 걸쳐 네 차례 진행하며, 당사자 그룹 간의 네트워킹 및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세대의 학자, 장인, 사업가들이 모여 시대의 난감함을 공유하고 각자가 모색하고 있는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자센터는 이 청년 모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그룹 및 개인들과 함께 향후 다양한 청년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m o r e i n f o

아카이브 하자
<http://archive.haja.net/archives/view/257>

소셜 허브

소셜허브 << 하자창의허브 << 삶디자인공방

대상 : 혁신학교, 마을 만들기 사업, 청소년 창업자,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진행 기간 : 2011년 2월 1일~12월 31일

장소 : 하자센터 삶디자인공방, 혁신학교, 청소년 창업공간, 경북 영천마을, 삶디자인공방

참가 인원 : 진행(공방 커뮤니티 10명), 워크숍 참가 (어린이 120명, 청년40명, 일반인 100명)

2011 하자센터 공간보존공간고서 하자예서있었던

<< i m a g i n e

2011년 12월 하자창의허브 오픈과 함께 시민사회의 허브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연결과 실행을 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삶디자인공방이 오픈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하자창의허브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장인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세대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프로젝트들을 시도해보는 그림을 그리고자 시작되었다. 이에 삶디자인공방은 목공기술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구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친화적, 대안적 삶의 기술 확산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 a c t

혁신학교 연계 사업

부천 부인중학교 공간 조성 프로젝트

하자센터는 2011년 3월 혁신학교로 지정된 부천 부인중학교, 광명 충현초등학교와 각각 MOU를 맺고 창의적 진로수업, 동아리 활동, 여행 활동, 교육환경으로서의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삶디자인공방은 이 사업 중 공간 디자인 쪽을 맡아 학교가 단순히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닌,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전제 아래 학부모와 지역민까지 함께 모이고 활동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공적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첫 번째 학교내 공간이 1층 현관카페 '다락'이다.

초기에 학교를 방문해 활용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공간을 찾아 보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교무실 복도 끝을 카페로 만드는 복도카페와 현관을 절반으로 분리해 만드는 현관카페를 제안했다. 공사기간이 짧아서 학생들과의 공동 워크숍은 진행하지 못했고, 현장 작업에 삶디자인공방의 청년들이 결합해 협업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카페가 오픈된 뒤 부인중학교에서는 이 공간을 수업과 전시, 학생 자치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교사 및 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충현초등학교 SI & 표찰 디자인 프로젝트

역시 하자센터와 MOU를 맺은 광명 충현초등학교와는 SI(School Identity)와 표찰 디자인을 진행했다.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충현초등학교의 SI 디자인은 기존의 관료적 느낌의 딱딱한 디자인을 탈피해 친근감이 느껴지는



2011. 삶디자인 공방



< 위 > 부인중학교 카페 '다락'

< 아래 > 충현초등학교 SI 디자인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택한 방법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두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 우선 전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을 공모했고, 이 중 선정된 작품을 삶디자인팀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인화, 개별화되어가고 이기주의로 치닫는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함께 배우고 같이 커나간다는 공동체성을 주심사 기준으로 해 추려냈다. 표찰의 경우 목재를 소재로 직접 칠을 하고 손글씨로 공간 이름을 써넣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지는 학교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집중했다. 애초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려 했으나 시간 등 진행 상 요인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전남 영천마을 생태화장실 조성 프로젝트

삶디자인공방은 전남 영천 마을에 생태화장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아티스트 레지던시의 일환으로 작가가 마을에 머물면서 특정 공간에 대한적인 작품을 조성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삶디자인공방팀은 전문가와 청년 커뮤니티가 팀을 이뤄 생태화장실과 태양열을 이용한 샤워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설계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 간단한 아이디어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를 담당한 건축가와 시설 시공을 담당한 삶디자인공방과 협업, 현장에서 진행했으며 오픈식에는 지역주민들을 초대해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시연회를 가졌다.

청소년 창업공간 BI디자인 및 공간 조성

하자센터의 청소년 창업 지원 사업인 ‘연금술사 프로젝트’와 협업해 2기, 3기 청소년들의 창업공간 BI 디자인 및 공간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기의 창업 공간은 마포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도시락가게 ‘소풍가는 고양이’, 3기의 창업 공간은 신촌역 인근에 위치한 컵케이크가게 ‘달콤한 코끼리’였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참여해 네이밍, BI, 주요 아이템 선정 등을 참여 청소년들과 협업해 진행했다. 이 결과 2기, 3기의 창업 공간이 각자 아이템은 다르지만 연속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다. ‘연금술사 프로젝트’ 팀과는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하고 있으며 창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게 오픈에 필요한 목공 및 디자인 기술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 c h a n g e

삶디자인공방에서 2011년에 진행한 디자인 프로젝트들은 전반적으로 진행팀과 당사자 간의 공동 워크숍을 전제로 설계되었기에 상당한 커뮤니케이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히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 아닌 탈근대 시민사회 공방의 한 모델을 만들려고 시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쌍방향 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가능하기에 협업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공방을 좀더 커뮤니티들의 자발적인 자활 활동 공간으로 운영해볼 예정이며 지역 내 다른 공방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 워크숍을 설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협업을 통해 지역민들과 더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마포 성미산마을 ‘마마스센터’의 부모들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당사자 그룹 및 사회적기업 등과의 협업해 주거문제와 직결된 자립형 생활기술 워크숍 등 사회성을 띤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해 볼 예정이다.

<< m o r e i n f o

페이스북 <http://facebook.com/hahahuhu.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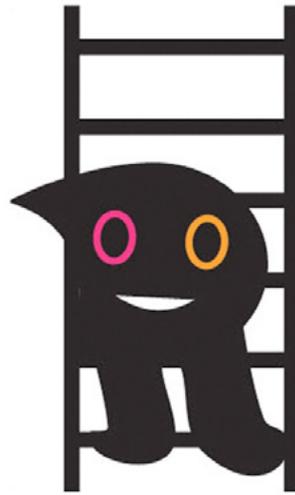
소셜허브 << 서울청소년창의서밋

대상 : 청소년 정책 행정가, 정책 연구자, 청소년, 교사, 학부모, 예술가, 사회적기업가 등

진행 기간 : 2011년 10월 14일(금) ~ 10월 16일(일)

장소 : 하자센터

참여 인원 : 총 참가인원 1779명 홈페이지 방문자 983명, 서밋페이지뷰 5543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상상, 행동, 전환
IMAGINE
ACT
CHANGE !
Seoul Youth Creativity
Summit & Festival

< 위 > 창의서밋 로고

< 아래 > 창의서밋 참가자들

<< i m a g i n e

올해로 3회를 맞는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상상, 행동, 전환'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 사회상황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천적 액션으로 연결하는 워크숍들을 통해 시대의 전환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교육, 청년 활동, 사회적기업 등 각 현장의 이슈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워크숍들과 오프닝 토크, 클로징 쇼케이스, 마을장터 '달시장' 등 풍성한 프로그램 라인업을 선보였다. 현장의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털어놓고 공동 행동의 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들이 이후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 a c t

개막일부터 비가 쏟아지고 찬바람이 부는 악천후였지만 모든 워크숍 및 행사가 예상 참여 인원을 웃도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새로운 '소통의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담론 중심의 기존 발제 형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당사자들이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발언하고 공동의 실천 계획을 모색하게 한 세팅이 주효한 결과인 듯하다.



오픈닝 토크(Opening Talk) (10/14 17:00~19:00)	200명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개막이 선언되는 자리. '상상, 행동, 전환'을 대표하는 국내외 인사들의 스피치와 공연 등이 준비되고, 개막제 후에는 리셉션이 이어졌다	
클로징 쇼케이스(Closing Showcase) (10/16 17:00~18:00)	70명
3일 간의 일정을 마친 워크숍 팀들이 만드는 쇼케이스. 함께했던 상상을 공유하고, 행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참가자 모두가 세상을 향해 전환을 제안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직업 없는 시대' 진로교육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미팅 (10/15 14:00~17:00)	70명
사회 급변에 따른 직종 변화,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심각한 취업난 등 불안한 사회 맥락 속에서 1인 기업, 멀티플레이어, 일을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교육 현장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탐색해 보면서 각 현장에서 가능한 상호협력 지점을 발견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청소년축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 (10/15 17:00~19:00)	55명
청소년의 해방구이자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해온 기존의 청소년 축제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청소년 축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등 청소년축제를 만들어온 전문가,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현장을 창의롭게 하는 아이디어 캐칭 (10/15 13:00~18:00)	23명
현장에서 창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선 학교 교사 및 청소년 활동가들을 위한 체험 워크숍. 협업을 바탕으로 한 문화 기반의 다감각 워크숍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는 실천형 워크숍으로 구성했다.	
자전거를 타고, 세상을 보다 (10/14 19:00~21:00, 10/15 10:00~18:00)	8명
자신의 힘으로 거리의 한계를 극복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환경, 지역문화, 세대 간 대화의 장을 모색해보았다.	
Dumpster Diving! (10/14 19:00~23:00, 10/15 14:00~18:00)	36명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배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덤스터다이빙이라는 유쾌한 액션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재미있고 능동적인 학습을 경험했다. 또한 공적인 공간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요리를 만들어 나누거나 캠페인 작업을 하면서 버려진 것들의 잠재적 가능성 및 함께 추진하는 힘을 발견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빅게임 하자 (10/15 13:00~17:00)	15명
기능적인 도구로서의 스마트폰이 아닌 소셜웨어로 스마트폰을 만나는 워크숍. 소셜웨어를 통해 함께 구성한 결과물을 공공의 인터넷 공간에 배포하면서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소셜섹터의 차세대 리더십 (10/15 13:00~17:00)	32명
부족한 자원으로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소셜섹터에서 세대별로 단절된 소통 방식을 연결하고, 소셜섹터에 요구되는 인재관을 서로 다른 세대들이 모여 만들었다.	
대안장터 기획자 포럼 (10/15 11:00~21:00)	45명
대기업 주도경제의 문화적 대안으로 시도되는 장터들의 사례 및 장터기획자들의 비전을 공유했다. 전국 각지에서 청년문화기획자들이 주축이 되어 펼치고 있는 대안적 장터 매핑과 장터 공동 아젠다 설정 및 향후 공동의 실천전략을 도출했다.	
이 시대의 교육포럼 3: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 대안문명의 상상력 그리고 학교들 (10/16 13:00~17:00)	70명
하자작업장학교와 대안교육연대가 함께 주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육포럼' 시리즈의 세 번째 포럼을 창의서밋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대안교육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했다. 각 대안학교들의 환경 교육 사례들을 학생 및 담임 교사가 직접 소개했다.	
영등포 달시장 (10/14 17:00~21:00)	1,000명
지역주민과 예술가, 영등포의 사회적기업가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마을장터.	
옥상농원 노을파티 (10/14 17:00~21:00)	80명
창의서밋에 초청된 게스트와 하자마을 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옥상농원에 모여 지는 해를 맞으며 다과와 음악을 나눴던 소박하고 따뜻한 커뮤니티 파티.	
허브2.0 오픈파티 (10/15 19:00~21:00)	100명
2010년 12월 오픈한 하자센터 창의허브는 다양한 세대의 기획자, 활동가, 문화작업자, 기술자들이 어울려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협력적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창의허브의 두 번째 스테이지를 열기 위해, 창의서밋에서 허브 2.0 오픈 파티를 열었다.	

<< c h a n g e

중고생 및 대학생들의 중간고사가 겹치고 다른 기관의 행사와 겹쳐서 참가자 및 자원활동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방학기간에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서밋은 서울시의 특별 보조금 없이 운영하기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국내 위주 행사로 성격을 조정해야 했다.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행사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기관들이 협력하는 운영조직이 필요하다.

하자센터는 2009년과 2010년 창의서밋이 보여준 이슈 파이팅과 국제교류의 틀을 살리고, 2011년 서밋의 워킹그룹별 워크숍이라는 형식을 융합하여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m o r e i n f o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홈페이지 <http://archive.haja.net/creativitysummit/main>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오프닝 트레일러 <http://vimeo.com/30475432>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결과 영상 <http://vimeo.com/30610798>



소셜허브 << 마을만들기 << 하자옥상농원

대상 : 하자센터를 이용하는 누구나

진행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장소 : 하자센터 본관 옥상농원, 본관 쇼케이스 등

2011 하자센터 연간 보고서 하자마을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2009년 중순부터 하자센터 앞에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 신축되는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녹지가 줄어들고 생태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 옥상을 농원으로 조성해 생태 감수성을 회복할 있는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기획을 내게 되었다. 이 결과 2010년 봄 하자센터 본관 옥상에 '하자옥상농원'이 들어서서 성과를 거뒀다.

그간 하자옥상농원은 하자센터의 판돌, 네트워크 학교의 청소년들, 연계 사회적기업 등 하자마을 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사계절에 맞춘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실험함과 동시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 진행하는 활동의 장으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하자센터는 센터를 드나드는 이용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생태적 공간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스스로 또 함께 실천하는 도시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 a c t

2010년 5월 개장한 옥상농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서 하자센터 내외부 사람들이 농사와 사계절파티를 통해 한데 모여 이야기하고, 배우고, 노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센터 내 옥상농원팀도 일터에서 '텃밭'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생겨난 자발적 모임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한 텃밭교실 프로그램, 텃밭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나누는 세미나,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을 찾은 국내외 참가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노을파티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김장파티 등 각종 행사,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 텃밭을 무대로 다양한 만남과 상상을 실천했다.

특히, 연초에 진행했던 텃밭세미나는 하자가 청소년 대안교육의 산실이라는 점, 하자 옥상농원 팀이 일터에서 텃밭을 매개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텃밭과 커뮤니티, 텃밭과 문화적 상상력'을 주제로 열게 되었다. 텃밭을 매개로 이어진 젊은 문화 작업자들부터 공무원, 일반 직장인, 교육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지역을 무대로 동네 텃밭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켜가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주요 특화 프로그램(총 6회, 460명 참가)

- 2월 19일(토) : 텃밭 세미나 ‘텃밭, 커뮤니티와 문화적 상상력’
- 4월 11일(월)~4월 16일(토) : 꽃씨파티 주간 / 하자옥상농원을 비롯 하자센터 본관, 신관 전체 녹지구역 정비
- 4월 12일(화)~4월 14일(목) : ‘점심시간, 줄지 말고 텃밭교실’ / 텃밭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농사 교육
- 4월 15일(금) : 꽃씨파티 / 함께 모여 모종을 심고 씨를 뿌리는 한 해 농사의 시작 행사
- 4~6월 : 청소년 생태디자인 프로젝트 ‘자.란.다’ 2 / 옥상농원의 디자인 작업을 모티브로 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9월 25일(일) : 옥상농원 라면영화제 / 청년 기획자들이 주축이 된 네트워크 행사
- 10월 14일(금) : 노을파티 /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가을걷이 파티
- 11월 24일(목) : 겨울로파티 / 한 해 농사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네트워크 행사

<< c h a n g e

생태/환경에 대해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단체 등 다양한 단위에서 도시텃밭을 만들고 이웃들과 연대해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나누거나 아예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도시 환경은 일상적인 놀이 공간들이 점차 없어지고, 자연을 접할 기회도 사라지고 있다. 도시의 텃밭은 자연과 생명을 접한다는 측면 외에도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워크숍을 하고, 예술표현도 하면서 다양한 학습과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무한 상상력의 공간이다. 하자옥상농원도 2012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용 빈도 급증에 따라 규모를 더 확장할 계획이다. 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이런 점을 다시 생각하면서 텃밭을 만들고,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셜허브 << 마을 만들기 >> 별자리파티

대상 : 하자센터 전체 구성원

진행 기간 : 2011년 4월 29일, 6월 30일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최근 몇 년 새 연계 사회적기업, 연금술사 프로젝트, 창의허브 등 신규 프로젝트 증가 등 하자마을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얼굴을 익히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하자센터 내 대안학교인 영세프와 연금술사 프로젝트 소속 청소년들이 3개월에 한번 별자리별로 센터 내 구성원들에게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별자리파티'를 기획, 진행해 보았다.

<< a c t >>

2011년 4월 29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영세프와 연금술사 청소년들이 기획한 별자리 파티가 진행되었다. 파티를 위한 회의, 기획단 구성, 음식 준비, 공연 준비, 홍보, 생일자 파악 등 모든 작업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였다. 이런 그들의 노력으로 두 번의 별자리파티를 통해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에 해당되는 하자마을 사람들이 특별한 생일 축하를 받게 되었다.

<< c h a n g e >>

당초 일년에 4회 진행을 목표로 했으나 영세프와 연금술사 등 대안학교와 센터 내 담당부서인 협력기획팀 각자의 자체 일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별자리파티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별자리파티는 2회 진행을 끝으로 아쉽게 마무리지을 수 밖에 없었으나 청소년 스스로 기획, 진행해 마을 성원들을 환대하는 프로젝트의 선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별자리 파티



사월, 이십구일 금요일 다섯시에
본관 쇼케이스로 초대합니다.



< 위 > 별자리파티 4월 포스터 / < 아래 > 직접 만든 파티 케이크

소셜허브 << 마을 만들기 >> 판돌 세미나/포럼 & 판돌 살롱

대상 : 하자센터 판돌 전원

진행 기간 :

판돌 세미나/ 포럼 2011년 3월 16일, 4월 8일, 4월 15일
판돌 살롱 2011년 상반기 매주 목요일 상시 진행



그 첫번째 시간.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비폭력 대화

강의 | 이영숙 교수
(한림대 사회학과)

2011. 3. 16. 3시-4시 | 신관 101호

판돌 대상으로 진행된 '비폭력 대화' 워크숍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하자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

하자센터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구성원들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판돌들의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판돌 세미나/포럼이 기획되었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시야를 넓히고,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판돌 살롱은 하자 사업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판돌들이 팀별, 사업별로 쪼개진 개별 일정 속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오후 전체 판돌이 신관 하하하커피에 모여 각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공식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문제들을 공유함으로써 교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런 정기적 모임을 통해 팀이나 사업 단위로만 집중되는 관심이나 시각을 팀 대 팀의 교류, 더 나아가서는 센터 전체 차원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a c t >>

판돌 세미나/포럼은 그때그때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혹은 전체 직원들이 같이 학습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기획, 진행되었다. 3월 16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한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비폭력대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4월 8일에는 하자센터 전체 사업의 개요와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4월 15일에는 '가정, 학교, 마을 그리고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 9.11 테러사건부터 2011년 3.11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그로 인한 방사능 유출사건까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짚어보고 이 안에서 청소년, 청년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하자센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 보았다.

판돌 살롱은 매주 목요일 오후 모든 사업팀들과 프로젝트별 TF들이 돌아가면서 현재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개별 기획자들의 고민을 공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상반기에 이런 판돌 세미나/포럼을 집중 진행함으로써 2011년 현재 한국 사회 속에서 하자센터의 역할을 돌아봄과 동시에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 프로젝트들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하자센터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내부와의 접점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 c h a n g e >>

판돌 포럼/세미나와 판돌 살롱은 상반기 이후 하자 각 판돌들이 기획,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잠정적으로 휴식기를 가졌다. 2012년에는 학습을 통한 하자와의 인의 내부 동기화라는 목표 아래 강의 중심의 판돌 아카데미와 주제별 스터디 그룹 형식의 판돌 소모임으로 통합,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소셜허브 << 마을 만들기 << 하자 투어

대상 : 청소년 정책 행정가, 정책 연구자, 청소년, 교사, 학부모, 예술가, 사회적기업가 등

사업 기간 : 2011년 1월 ~ 12월

장소 : 하자센터

참여 인원 : 총 참가인원 900명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하자에서 있었던 일

<< i m a g i n e

하자센터 및 하자센터 기반 사회적기업을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과 개인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업무를 체계화하고, 하자센터 개요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하자센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 창의교육과 청년창업, 사회적 창업 등 혁신 분야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삼는다.

<< a c t

2011년의 하자투어는 국내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상설 프로그램인 정기 하자투어 및 교육과 사회적기업 등 각 분야에 초점을 맞춰 기획되는 비정기 하자투어 프로그램으로 나눠 내방자들의 관심사에 맞춰 심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로 진행되었다. 정기 하자투어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상설 진행되었으며 하자센터 사업 전반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및 홍보 영상 감상, 센터 시설 투어, 질문과 답변 등으로 구성,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정기 하자투어 외의 투어 요청은 센터 판단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1인당 1만원으로 유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진행된 하자센터의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와 이 결과 배출된 연계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 사회적기업 하자투어를 별도로 운영했다. 사회적기업 하자투어는 하자센터 사업 전반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하자센터 창!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하자 연계 사회적기업 사업 소개, 센터 시설 투어, 질문과 답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회적기업 하자투어는 5인 이상에 한해 희망 날짜 조정 후 결정되었으며 1인당 2만원, 15인 이상 단체는 1인당 1만원으로 유료 제공되었다.

<< c h a n g e

이후로도 하자센터는 대외 홍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외부 협력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 m o r e i n f o

하자넷 하자투어 안내 페이지 <http://2010.haja.net/about/tour>

정기 및 비정기 하자투어 주요 실적

일 자	내 용	인 원
1	1.20 1월 정기 하자투어	9
2	1.21 홍콩 YMCA 관계자	5
3	2.17 2월 정기 하자투어	5
4	2.1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공무원	2
5	2.24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클리닉센터 임직원	5
6	2.25 광주지역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관계자	6
7	2.28 일본 미야모토 미치코 교수팀	11
8	3.17 3월 정기 하자투어	5
9	3.18 태국교직원 시찰단	32
10	3.26 일본 내각부/미츠비시 컨설팅	2
11	3.29 서울대 행정연수원	80
12	3.29 이화여대 사회적기업가 과정	80
13	3.29 숙명여대 앙트러프러너센터	33
14	4.15 팔레스타인청소년센터	5
15	4.21 4월 정기하자투어	7
16	4.21 울산시 울주군청 공무원	3
17	4.27 부천수련관 임직원	6
18	4.28 경북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40
19	5.19 말레이시아 청소년 지도자 대표단	15
20	5.19 아주대학교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	25
21	5.27 한양대학교 아동심리학과	10
22	5.31 국무총리실 사회적기업 현장방문	5
23	6.3 사회적기업 불평없는 세상 임직원	5
24	6.11 희망제작소 희망탐사 1기	30
25	6.15 홍콩 교원대 학생 및 교수	20
26	6.18 예비 사회적기업 아이엠궁 임직원	4
27	6.22 연세대 사이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및 교사	16
28	6.22 문화부차관 주재 사회적기업 간담회	3
29	6.23 6월 정기하자투어	7
30	6.30 폴란드 청소년 방문단	11

일 자	내 용	인 원
31	7.21 7월 정기 하자투어	13
32	8.5 아주대학교 중등교사 연수	30
33	8.17 유스바람개비 '소셜비즈니스아카데미'	30
34	8.18 강원도 학생교육원	4
35	8.18 8월 정기 하자투어	15
36	8.24 강원도 학생교육원	2
37	8.24 스스로넷 학생인턴	5
38	8.26 마포문화재단 전주대 E-복지관	12
39	8.2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2
40	8.30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팀	7
41	9.22 9월 정기 하자투어	5
42	9.24 일본 오사카 시립대 방문단	11
43	10.12 여성가족부 초청 말레이시아 대표단	15
44	10.19 2011 국제사회적기업가컨퍼런스 해외게스트	16
45	10.20 10월 정기 하자투어	7
46	10.27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 및 학생	28
47	11.2 경기지역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참가자	15
48	11.15 일본 히로시마현 여성회	10
49	11.17 11월 정기 하자투어	5
50	11.18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16
51	11.22 대신능력개발센터	10
52	11.23 성분도복지관 임직원	10
53	11.25 상주 공갈못문화재단	8
54	11.26 홍성청소년수련관 교사 및 청소년	10
55	11.26 순천향대 청소년상담심리학과 학생	20
56	11.30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20
57	11.30 경북도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7
58	12.7 칠레 청년 및 국가청소년처 직원	5
59	12.22 12월 정기 하자투어	25
합계		900

<< a c t

2011년 하자센터 및 하자마을 사람들을 다룬 주요 기사들

‘예술교육으로 창의성 키워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중앙일보 2011.1.19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944433&cloc=olink|article|default
 하자센터의 창의성 프로그램 소개

[여행] ‘착한 여행’ 떠나볼까...공정여행 조용한 인기 / 이투데이 2011.2.14

<http://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08&idxno=406116>
 연계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 소개

[직업탐색] 사회적 기업가 이지혜씨 / 중앙일보 2011.2.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13/2011021300491.html
 연계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 공동대표 인터뷰

“새로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 내일신문 2011.2.18

http://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1&nnum=594116
 ‘혹,이심?’ 프로젝트 청소년 인터뷰

키우는 장치 없이 ‘거르는 장치’만 판치는 막장 사회 / 시사인 2011.2.28

<http://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7>
 하자센터 설립자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칼럼

취약계층에 교육·공연서비스, 젊은이엔 취업기회 / 주간조선 2011.2.28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45100011&ctcd=C04>
 연계 사회적기업 노리단 소개

대한민국 청소년들, 아웅산 수치 직접 만났다 / 아시아경제 2011.3.2

<http://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0210174410309>
 하자작업장학교 버마 난민캠프 프로젝트 및 아웅산 수치 회견 소개

한국 청소년 11명, 아웅산 수치 여사 인터뷰 / 한국경제 2011.3.3

<http://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037228i>
 하자작업장학교 버마 난민캠프 프로젝트 및 아웅산 수치 회견 소개

언론도 만나기 힘든 수치 여사, 한국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뷰 / 조선일보 2011.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3/2011030300061.html
 하자작업장학교 버마 난민캠프 프로젝트 및 아웅산 수치 회견 소개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 아웅산 수치 여사 만났다 / 여성신문 2011.3.11

<http://womennews.co.kr/news/48740>
 하자작업장학교 버마 난민캠프 프로젝트 및 아웅산 수치 회견 소개

학생의 권리, 권리의 학습 / 참세상 2011. 3.21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831>
 하자작업장학교 김희욱 교장 기고 칼럼

텃밭을 가꾸며 아이들의 창의성이 ‘자란다’ / 아시아경제 2011.3.21

<http://asiae.co.kr/news/view.htm?idxn=2011032110170086044>

청소년 생태디자인 프로젝트 ‘자.란.다.’ 소개

“역사는 내 운명, 유네스코는 내 꿈” / 내일신문 2011.4.10

http://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1&nnum=601073

‘혹,이심?’ 프로젝트 청소년 인터뷰

“자살하려던 남자, 내 노래 듣고 못 죽겠대요”

[인터뷰] 인디밴드 ‘하이미스터메모리’ 기억씨를 만나다 / 오마이뉴스 2011. 4.16

http://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2257

일취월짱 및 일일직업체험 강사 박기혁 인터뷰

공립학교, 초등생이 학교 마크 디자인… 중학교 안에는 多樂카페도 / 한국일보 2011.4.18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4/h2011041802324321950.htm>

삶디자인공방의 혁신학교 디자인 협력사업 소개

포크가 그리울 땐 ‘안녕, 기억씨’ / 한겨레신문 2011.4.19

<http://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473736.html>

일취월짱 및 일일직업체험 강사 박기혁 인터뷰

서울시, 하자센터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커리어데이’ 오픈 / 이투데이 2011.4.19

<http://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34>

진로설계 프로그램 ‘커리어데이’ 소개

“몸으로 풀어내는 이야기…아이들 습관도 바뀌요”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 / 공감코리아2011.4.22

[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getNewsReporter.do?newsDataId=148710352§ionId=PE_SEC_1_](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getNewsReporter.do?newsDataId=148710352§ionId=PE_SEC_1_EDS0304005&call_from=extlink)

[EDS0304005&call_from=extlink](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getNewsReporter.do?newsDataId=148710352§ionId=PE_SEC_1_EDS0304005&call_from=extlink)

연계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 소개

그들은 왜 독립출판을 하나 / 주간한국 2011.5.10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1105/wk20110510040954105450.htm>

하자창의허브 멤버 인터뷰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제품 파는 ‘달시장’ 눈길 영등포경찰서 옆 하자센터서 내일 오픈 / 시민일보 2011.5.23

<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69063>

영등포 달시장 소개

희망의 인문학-정재승이 만난 사람들 (1)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 / 중앙일보 2011.5.23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523801&cloc=olink|article|default

하자센터 설립자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인터뷰

신나는 리듬과 함께 해요! / 뉴시스 2011.5.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69712>

하자작업장학교 공연 소식

하자센터 청소년연합팀의 공연 / 연합뉴스 2011.5.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076903>

하자작업장학교 공연팀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공연

영등포 주민참여 마을장터 개소 / 세계일보 2011. 5.25

<http://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10525005643&subctg1=01&subctg2=>
영등포 달시장 소개

사회적기업 돕는 벼룩시장 열어 아시아경제 2011.5.25

<http://asiae.co.kr/news/view.htm?idxn=2011052510414042654>
영등포 달시장 소개

영등포구, 마을장터 ‘달 시장’ 오픈 / 한강타임즈 2011.5.26

<http://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26794>
영등포 달시장 소개

“자립의 꿈 푼돌 몽친 주먹밥 맛 보실래요” / 한겨레신문 2011.5.26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9988.html
연금술사 프로젝트 2기 ‘소풍가는 고양이’ 개업 소식

“소풍가는 고양이, 쌈밥·주먹밥 속에 창업 성공의 꿈이 꽂~” 한국일보 2011.5.28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5/h2011052802313521950.htm>

청소년 권장사이트에 ‘하자센터’ 등 10곳 연합뉴스 2011.6.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36974>
하자센터 사이트 ‘하자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 2분기 청소년 권장 사이트 선정 소개

말썹꾸러기들의 좌충우돌 공부법이 성공한 이유 [학교 밖 인문학 여행] <1> / 한국일보 2011.07.1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1121032722020.htm>
<한국일보> 교육면 하자센터 고정 칼럼

‘희망 버스’ 말고 ‘희망 보트’도 있다 / 시사인 2011.7.13

<http://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10647>
연계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이 주관한 ‘제주피스보트’ 소식

여수 청소년들이 느낀 고향은 ‘결핍 아닌 축복’ [학교 밖 인문학 여행] <2> / 한국일보 2011.8.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0121043522020.htm>
<한국일보> 교육면 하자센터 고정 칼럼

“알짜배기 여름축제 찾아 떠나요” / 서울경제 2011.7.21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107/e20110721171745118120.htm>
하자센터가 총괄 큐레이팅한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소개

바이널아이, 청소년직업센터와 체험캠프 ‘커리어워크’ 개최 / IT 데일리 2011.7.28

<http://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27053#>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소개

기후변화 시대 어떻게 살지?...문제제기 해봐 / 한겨레 2011.08.08

<http://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0845.html>
하자센터가 총괄 큐레이팅한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소개

기후변화 문제? ‘창의’로 풀어봤어요! / 한겨레 2011.8.8

<http://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0809.html>

하자센터가 총괄 큐레이팅한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소개

“2005년에 창업, 지금까지 영업 한 번 안했어요” / 오마이뉴스 2011.8.9

http://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8879

연계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 대표 인터뷰

못사는 집 아이, 부모가 신경 쓸 여유 없어 ‘낮은 학력’ 대물림 [학교 밖 인문학 여행] <3> / 한국일보 2011.08.15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1520373122020.htm>

<한국일보> 교육면 하자센터 고정 칼럼

‘청년 친화적’ 사회협약 / 아시아경제 2011.08.16

<http://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81611312748200>

전효관 하자센터장 기고 칼럼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 중앙일보 2011.8.17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987215&cloc=olink|article|default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 소개

[창의영토를 넓히자] 질문에서 시작하는 창의성 ‘C-Cube’ / 아시아경제 2011.08.19

<http://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81913175672423>

청소년 창의캠프 ‘C-큐브’ 소개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열어 / 아시아경제 2011.08.23

<http://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82313173005188>

영등포 달시장 소개

하자센터 주최 ‘영등포 달시장’ ‘달밤의 난장’에 마실 오세요 / 시사인 2011.8.29

<http://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8>

영등포 달시장 소개

‘무중력 청소년’에 음악교육으로 자존감 회복 [학교 밖 인문학 여행] <4> / 한국일보 2011.8.30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08/h2011083002321822020.htm&ver=v002>

<한국일보> 교육면 하자센터 고정 칼럼

‘황웅도 잠복기’ 무대 올린다 / 코카뉴스 2011.9.2

http://cocanews.com/?doc=news/read.htm&ns_id=13913

하자작업장학교, 타이헨 극단과의 공연 프로젝트 소개

경제’와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아시아투데이 2011.9.12

<http://asiatoday.co.kr/news/view.asp?seq=526755>

영등포 달시장 소개

농원으로 변신한 센터옥상, 학생들 상상력의 공간으로 [학교 밖 인문학 여행] <5> / 한국일보 2011.9.2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002303322020.htm>

<한국일보> 교육면 하자센터 고정 칼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며 먹는 음식 / 시사인 2011.09.22

<http://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4>
연계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 소개

“日원전 사고와 한국의 정전사태는 말한다” / 국민일보 2011.09.2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380965&cp=nv>
하자작업장학교 주최 강연 게스트 후지무라 야스유키 대표 인터뷰

청소년에게 희망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학교 밖 인문학 여행] <6> / 한국일보 2011.10.0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0402335521950.htm>
<한국일보> 교육면 하자센터 고정 칼럼

14일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 포커스신문 2011.10.11

<http://fnn.co.kr/content.asp?aid=d99a357f8be64fd0a9964ab90747b99d>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소개

14~16일 하자센터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조선일보 2011.10.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0/2011101001333.html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소개

“창의성은 다르게 보는것...잡스가 롤모델” / 포커스신문 2011.10.17

<http://fnn.co.kr/content.asp?aid=20ea6e801394491bb235c1e7b26620af>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게스트 에이다 윙 인터뷰

꿈은 바뀌는 것! 두려워 말라! / 한겨레신문 2011.10.17

<http://hani.co.kr/arti/society/schooling/501058.html>
하자센터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소개

“우리 부부는 친환경 생활 실천을 서약합니다” / 중앙일보 2011. 10. 27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518874&cloc=olink|article|default
연계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 에코 웨딩 소개

영여들의 외침 [학교 밖 인문학 여행] <8> / 한국일보 2011.11.1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11/h2011110102302322020.htm&ver=v002>
<한국일보> 교육면 하자센터 고정 칼럼

교육을 통해, 진심은 전달될 수 있을까 [학교 밖 인문학 여행] <8> / 한국일보 2011.11.22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2202304022020.htm>
<한국일보> 교육면 하자센터 고정 칼럼

2012년, 모색이 아닌 실천의 시간

하자센터는 올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1년 10월 열린 2011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을 통해 이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출발점을 많은 분들의 의지 속에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관행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기존의 답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서 명쾌한 해답을 던져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하자센터가 지난 기간 노력해 왔듯이, 청(소)년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듣고 학습하고 연결하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노력은 아주 시급한 요구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노력 속에서만, 또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근본적 노력 속에서만 기존 시스템이 강제하는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현장은 항상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협력과 창의적인 시도 속에서만 문제 해결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자센터는 이러한 공동 협력과 사회적 창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신관의 '창의허브'를 같이 놓고 논의하고 작업하고 실천하는 공간이자 활동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의허브'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의미 있게 읽어주고 작은 힘을 보태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서로의 가치를 읽어 줄 수만 있다면 놀라운 변화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에너지가 교환됨으로써 우리는 거침없이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현장에서 어렵지만 실천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한 상상의 힘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전환의 동력이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서로 힘을 빼지 않고 격려하는 에너지들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자센터는 2012년 한 해 동안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모든 이들과 공감, 소통, 협력, 공동 기획 등 다양한 연계 지점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상황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내고자 하는 에너지들이 모인다면 세대간, 영역간, 지역간 간극을 넘어 사회혁신으로의 도약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응과 모색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전환과 실천의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효관(전군, 하자센터장)

2011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haja Center annual report

기획 & 편집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uze@haja.or.kr
디자인 남이(인비트윈 스튜디오) solar402@hanmail.net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TEL. 02 2677 9200
www.haja.net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2, haja Center. Some rights reserved.

